KoreaAnabaptistJournal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통권19호

공동체 소식 • 04 / **기관 소식** • 17
행사 후기 • 공동체를 위한 시스터케어 리더십 세미나–문선주 • 24
IVEP 소식 • 1) 새로운 선택, IVEP–류은지 • 29
2) 나를 사랑하게 된 시간–이주영 • 34
한국 아나뱁티스트 묻고 답하다(9,10) • 배꽃잎 김효성 • 36
탈식민주의 • 1) 메노나이트의 정체성과 인식전환–염혜정 • 48
자본주의 • 1) 자본주의에 대한 성서적 이해, 그리고 대안–남기업 • 56
언론 • 1) 흉기가 된 언론, 잊지 말아야 할 것은–구권효 • 65
2) 평화를 이야기하는 저널리즘 상상하기–김가연 • 70
강의요약 •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 – 강남순 • 78
책 소개 • 아직 크리스텐덤 안에 있는가? – 고학준 • 78

2019
봄 · 여름호

Korean Anabaptist Journal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
2019 가을 겨울 통권 19호
●발행처: 한국아나뱁티스트펠로우십(Korea Anabaptist Fellowship) ●www.wkaf.net ●발행인:남상욱 ●편집장: 문선주
●편집위원: 배용하 염혜정 한준호 ●발행일: 2019. 12. 27 ●창간일: 2012. 7. 12 ●주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매죽헌로1176번길 8-54●전화: 041-742-1424 ●e-mail: byh1424@gmail.com ●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신청해주세요.

편집인의 글

자본주의와의 불화

배용하 형제
논산평화누림교회

"돈 때문에 위험한 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아끼려고 점심은 컵라면으로 해결해요."
"보험금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어요."
"사장님은 비용을 줄이려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장구를 구비하지 않아요."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뉴스의 헤드라인은 우리 시대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자본이란 무엇이고 돈이란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돈을 생명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돈으로 교환하는 것들 중에 생명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될까? 엥겔지수를 보면 한국이 14.1% 독일이 10.6% 미국이 12.9% 일본이 25.5%이다.(2017년 자료) 물론 이것은 절대비용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이 숫자만 가지고 어느 나라 국민이 생명과 관련한 먹는 것에 더많이 지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 한 달간 지출한 돈의 용도를 한번 되짚어보면 돈에 대한 사람들의 맹신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알 수 있다.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재와 서비스재까지도 이젠 생명을 좌우하는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돈은 거래의 매개 수단이다. 사회적 약속을 기반으로 예비금을 넣어서 만든 것이 돈이다. 이 돈은 신용을 좌우하고 부채를 만든다. 돈 자체가 부채이기도 하

다. 돈을 사용하는 것은 역시 돈으로 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려면 수익을 창조하라고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의 많은 영리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돈의 창조성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라고 인격화하기도 한다. 실체가 없는 돈이 실체가 없는 돈을 창조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그럼 자본은 무엇일까? 자본을 설명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스로 증식한다"는 수식어라고 생각한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단 100원이라도 그 돈의 역활만 주어진다면 자본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자본가가 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궁중족발로 대변되는 수많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돌아보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크게 배운(?) 사람들이 시골의 작은 읍이나,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을 찾아서 정체를 숨긴 채 계획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자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인위적인 터를 만드는 기형적인 형태의 자기합리화까지 하는 형국이다. 이것이 자본의 얼굴이다. 건물은 이미 자본가가 소유하고 있다. 당신은 돈을 여기저시서 끌어모아 건물 한 귀퉁이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한다. 한 귀퉁이가 없이는 돈을 창조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번 돈을 건물주(자본가)에게 바친다. 건물주가 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계속된다. 어느정도 땀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임대료를 내고 투자한 것을 상쇄하고도 돈이 남을 정도가 되면, 건물주는 기다렸다는듯이 임대료를 올린다. 살인적으로 올린다. 이전보다 더 나쁜 조건에서 시간과 땀을 투자해서 자본가에게 바치는 일이 반복된다. 자본가(건물주: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가 되기 위해서 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순간부터 진짜 자본주의가 원하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건물주가되면 임대료 보다 적은 금융이자를 낸다. 이제부터는 건물이 자본이 되어 비로소 새로운 돈을 창출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의 80%는 금융의 자본인 채 말이다.

기독교 뿐아니라 대부분 종교에서 돈은 대놓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다. 이미 돈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반증할 수 있을까? 비록 대놓고 돈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는 적지만,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거쳐서 지배적인 힘을 가진 돈에게 종교만 예외이기는 쉽지 않다.

예수의 가르침이 단순한 제시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신앙고백을 하는 아나뱁티스트 전통의 기독교인들에게 돈이라 무엇일까? 특별히 자본의 역할을 하는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자본주의는 돈을 자본화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긴다. 돈을 교환의 가치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본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교회는 사회의 기업들에게나 당연한 물신숭배와 이익창출의 대열 앞에서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가난해지라고 한 복음서의 군더더기 없는 메시지는 강단에서 더는 인용되지 않는다. 돈과 부에 대한 이야기라며 예수의 가르침보다 실용적인 정보들이 진리가 된다. 그리고 그 정보에 열광한다.

사고는 사고고 삶은 삶이라는 태도는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고의 시작은 마땅히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고의 끝이 진리에 대한 사고는 형이상학에 묶어두고, 실제 삶은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에 동조해야 하는가?

우리 시대의 아나뱁티스트 운동에서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돈을 자본이 되게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점점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을 소외시키는 자본이 된 돈에 대한 저항도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저항의 물결에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서는 과연 어떤 삶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가? 어떻게 산 예수의 삶을 따르라고 초대하는가? 어떻게 살면서 예수의 삶을 따르라고 가르치는가?

누구에게는 단순한 질문이지만 누구에게는 심각한 질문일 것이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진다.

지난호 저널은 www.wkaf.net / www.anabaptist.kr 에서.

예수촌 교회

(2019년 하반기)

'새로운 시작, 아름다운 동행'

예수촌 교회는 2.0시대를 맞아 교회 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회중교회의 모습을 단단히 다져가고 있다. 또, 오랜 기도의 결실을 맺는 세 커플의 반가운 결혼 소식이 있었다.

예수촌 축가 사절단의 4중창은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축복하기에 충분하였다.

예수촌 교회 2.0시대

춘천 예수촌 교회는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교회 구조의 변혁이 시작되었다. 기존 리더제는 리더 투표로 결정된 리더 가정들이 교회의 방향과 안건들을 논의하는 중심 그룹이었다면, 2.0시대에 여는 '위원회 구조' 는 좀 더 수평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작년 12월에 위원회 구조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TFT를 꾸려 수차례의 회의를 하였고, 위원회 구조의 형태와 내용을 만들어 공동체 회의에 '안' 을 제시하였다.

위원회구조란, 교회의 기능별로 위원회를 만들고, 각 위원회의 장과 위원들이 위원별 회의를 통해 안건을 만들고, 자발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구성해 나가는 구조이다. '자발성' 과 '수평적' 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6개의 위

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 예배, 교육, 나눔, 관리, 목양 위원회로 나누어 각 위원회의 역할을 정하였다. 먼저 위원들이 스스로 원하는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 안에서 각 장을 선출하였다.

리더제와 위원회의 제도의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공동체 회의의 방식이 변화한데에 있다. 공동체 회의의 안건이 어디서에서 나오는 가이다. 기존 리더제는 리더들이 각 필요들을 파악하여 먼저 리더 회의에서 공동체 회의에 내놓을 안건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공동체가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활발한 회의를 거쳐 안건이 취합되면 바로 공동체 회의에 올라간다. 공동체 회의에서 각 위원회별 안건을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의결 원칙에 따라 그 자리에서 결정 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의 전환은 교회의 일들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닌 모든 지체 스스로가 '회의' 에 참여하여 활발한 소통과 자발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렇게 초대 위원장들이 축복 속에 세워지고, 위원회 구조가 확립되어 3월부터 시행하여 지난 9월에 중간 평가 시간을 갖게 되었다. 위원회 구조 평가를 위한 TFT이 세워졌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하였다. 리더제에서 위원회제로 변화하는 과도기에서 출현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 중점은 위원회 구조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와 문제 그리고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지체들은 위원회 제도가 현재 예수촌 교회에 적합한 구조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

기능적으로 나눈 구조이다 보니, 기능별로 나눌 수 없는 문제들과, 공동체회의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안, 그리고 교회 전체 방향을 논의할 그룹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본래 위원회 구조는 이러한 사안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묘미이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는 회의를 통해 TFT을 꾸리고, 방향과 철학 역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방향을 논의하는 이상적인 구조이다. 다만, 지금 과도적인 상황에서 이상과 현실을 동시 달성할 수 없으니, 단계적인 변화를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따라서 위원장들이 운영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예외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운영회의모임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기존 운영위원회는 분류에 따라 다른 위원회로 편입시키기고, 운영회의모임으로 변경하여 위원장간의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 변화를 주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별 회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차별 점심 모임일정을 잡았고, 위원회를 넘어서는 확대모임과 특별 모임도 추진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구조 시행과 평가는 현재 예수촌 교회를 살펴보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주었고, 수평적 구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회중 중심 교회에 대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

형제, 자매의 결혼식 소식

한국 교회 내에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 학업과 취업에 의해 뿔뿔이 흩어지면서 교회 내에서의 교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고, 교회 밖에서도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만나 교제하고 결혼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예수

촌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오랫동안 기도해온 형제, 자매들이 있다. 교회 식구들과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함께 기다려왔다.

올해, 기도의 결실을 세 커플이 맺게 되었다. 동시 다발적으로 한 형제, 두 명의 자매가 각 자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다. 연애 소식만으로도 교회의 축복을 쏟아졌다. 게다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결혼식이 올해 5월, 10월, 11월에 은혜 속에서 열렸다.

예수촌 교회 가족들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축복하노라' 축가를 준비하였고, 결혼식이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4중창 실력에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축하해줄 수 있었다. 세 커플 모두 결혼 예배로 결혼식을 드렸고,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부가 신랑에게 직접 전하는 축복송은 하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었다. 이제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주시길 바란다.

〈정리 : 김보람 자매〉

주님은 나의 목자교회/톨스토이 농장 소식

1. 2019, 11. 29

서리와 햇살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세상
한참을 자다가 아직도 깜깜한 새벽녘,
닭소리 한번 듣고 밖에 나가보니 달빛에 온 천지가 하얗습니다.
눈이 온거라 생각했습니다.
'첫눈이 내렸네.'
기분 좋게 다시 잠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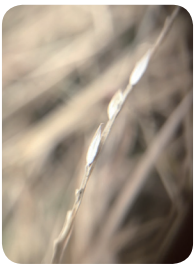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새 이슬이 눈처럼 많이 내렸습니다.
짐승들 밥 챙겨주고,
닭이 낳아놓은 알 챙겨오고,
우리 밥 먹고,
막내 아이 학교 태워다 주고,
휴, 과수원 나무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땅은 햇살을 받아 대부분 제 색깔로 돌아 갔지만,
서리와 햇살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세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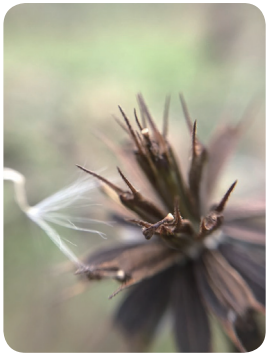
2. 2019. 12. 3

그 자체로 아름다운 생명이어라
과수원을 거닐며
복숭아 나무들의 상태를 살피다,
발아래 밟혀지는 이름모를 풀들의
마른 꽃과 그 씨앗에 눈이 갑니다.
한 땐, 농부의 마음을
매우 심난하게 했던 존재들이지요.
예초기의 무지막한 칼날도 피해내며
당당히 제자리를 꿰찬 생명입니다.

이젠 메마른 풀 되어 밟히지만,
제 몸에 붙어 있는 마지막 씨
한 톨까지 땅에 떨궈 내려고,
바람과 이슬과 비와 햇볕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네요.



인내를 가지고 한자리에서 오래 들여다 보면,
누구에게나 말 걸어주는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아하!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따뜻한! 겨울 입구에 서서-3

햇님이 피곤하신가?
구름 잔뜩 낀 하늘이 제법 쌀쌀합니다.
작업복 겹겹이 껴입고, 방한화까지 챙겨신고,
농장에 나가 전에 하던 일 계속합니다.
어제는 성탄절이라 쉬었으니까요.
비가 한두방울 떨어지길래 못 본척 했더니,
심보가 났나?
주루룩 오네요.
이런 날 농부에겐 찜질방이 최고죠.

누군가 멋진 황토찜질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보세요.
안에 누구 없나요?
들어 가도 되나요?"
금새 마음씨 좋은 아저씨든 아주머니든
누군가 빼꼼히 문열고,
"어서 와요."하며
손잡아 이끌어 줄 듯 합니다.

차 한잔 해야지.

평화누림교회

멤버 동정

안치연 자매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가 큰 상을 타서 서울 시상식에도 다녀왔습니다. 그 뒤로 욕실에서 미끌어져서 한달 넘게 고생을 했고 지금은 천천히 산책도 할 정도로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범 형제는 논산의 사진공모에 참여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진작가 김영범이라고 불러주세요. ^_^

배중열 형제가 병역대체근무를 하다가 국립 한국농수산대 특용작물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대는 대신 3년간 공부하고 6년간 농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병역문제도 해결하고 관심있는 허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되니 감사한 일입니다. 배꽃잎 자매는 옥바리지선교센터에서 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진 것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을 만나느라 몸보다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배꽃나래 자매는 첫 다큐멘터리 영화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작품상, 관객상)와 서울독립영화제 등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직장도 그만 두고 전국을 다니며 영화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박민서 자매는 느헤미야 신학 심화과정을 하고 있으며 첫번째 시스터케어를 준비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양촌리 부녀회장으로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학준 형제 윤찬란 자매님이 느헤미야 신학입문과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고학준 형제는 바이오인텐시브라는 캐나다의 유기농업에 관한 동영상을 번역 편집하였

습니다. 유투브에서 만나보세요. 배용하 형제는 책을 만들면서 찾아오는 방문자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멤버 "한상영 자매" 신앙고백

인도에서 청소년교육 선교를 하고 있는 한상영 자매님께서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멤버로서 공부를 하고 신앙 여정을 나누었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가을 음악회 열어

9월 8일에 해오른누리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논산의 여러 지인들과 가을 맘의 정취를 같이 누렸습니다.

마을잔치 열어

12월 25일에 마을잔치를 열었습니다. 양촌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봄봄싱어즈 합합창단이 공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정리: 배용하 형제〉

삼송동안교회

7월 10일 소통

나름대로 사람들과 잘 '소통'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인 저희 아이들과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가족을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매순간 '복음' 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는 내 속에 내적인 회복을 가져와 나를 통해 외적인 회복을 이루어 냄을 믿습니다.

삼송동안교회에서는 1학기 성경공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엡4:13), 〈복음〉, 〈성경적 교회〉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나누며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며,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8월 10일 여름 휴가

입추(立秋)가 지났는데 여전히 날씨는 너~무 덥네요.

(아이들의 일정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극성수기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처가가 있는 양양과 그 주변에서 지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었지만,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름 재충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개강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더운 여름 화이팅!!

(교회에서는 더위를 피해 대부분의 성경공부를 휴강했습니다.)

9월 10일 내일 일을

몇 주 전,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기한이 아직 남았는데 집을 좀 비워달라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남편이 몹쓸 병에 걸려서 치료비 사용을 위해 집을 급매하게 되었다고.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주인집을 위해 기도하면서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집으로, 가족이 불편하지 않은 집으로, 선하게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

다 없어지는 안개라.(약4:14)”

삼송동안교회에서는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됨을 다지기 위해, 계속 〈복음〉과 〈교회〉를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 〈골로새서〉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삼동이’ 가 달라졌어요〉 행사를,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길 기대합니다.

10월 10일 소확행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이지만

올해는 뭔가 남달랐습니다. 주헌(장남)이는 고등학교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고, 율하(막내)는 초등부 풋살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대견스러울 따름입니다. 사택은 ‘여호와 이레’ 로 같은 단지에 구해졌습니다. (11/4 집 이사 예정) 한 가지, 한 가지 일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삼송동안교회에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우리 ‘삼동이’ 가 달라졌어요〉를 재미있게 진행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 됨과 도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카페 〈와락〉에는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이 왕래하며 조금씩 얼굴을 익히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 열매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11월 10일 새로운 보금자리

지난 한 달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계약, 은행대출, 청소 및 이사업체 선정, 간단한 집수리, 전입신고 등.

비록 옆 동으로 이사했지만 적잖은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특히, 일상을 소화 하며 틈틈이 짐을 정리한 아내는 몸살이 났습니다.ㅠㅠ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짐을 보며 단순한 삶이 그리워집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삼송동안교회에서는 10월 12-13일(1박2일)에 '이렇게 기도하라' 란 주제로 (주기도문 강해)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은혜로운 시간과 공동체가 하나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 로 지키며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와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11월 초에는 말없이 애쓰시는 중보기도팀을 격려하고자 특강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 번 그들의 사역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KAC 소식

1. 평화저널리즘 스쿨

지난 6월말부터 8월초까지 뜨거운 여름을 불살라 '평화저널리즘스쿨'에서 평화의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함과 동시에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에서 잘 들려지지 않는 소리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과물로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를 찾아가서 관련자와 인터뷰하고 단체를 취재하는 일을 해 보았는데 그 기사가 뉴스앤조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평화저널리즘 스쿨을 통하여 사건을 이해하는 평화적 관점을 배웠고, 또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득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사가 하나 나오기까지 가치관과 만남과 노력과 합동작업의 수고와 퇴고의 퇴고가 맞물러 돌아가는 여정이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라는 점도 몸소 체득하였습니다. 취재에 임해주시고 저의 질문과 부탁에 성심성의껏 답해주신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의 조영미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전쟁

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이 약자로만 남지 않고 평화 프로세스에 기꺼이 동참하며 평화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도전은 마음 깊이 마음 속에 남습니다.

2.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 소식

7월에는 춘천에 있는 예수마음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서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며 개괄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2주 차에는 아나뱁티스트의 역사를 지역별로 공동체별로 분류하여 사람과 연대와 사건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차에는 헤롤드 벤더가 쓴 '아나뱁티스트의 비전' 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하여 제자도, 공동체, 평화에 역점을 둔 아나뱁티스트의 비전이 기독교에 주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4주차는 예수마음교회에 출석하시는 형제님 (김성한 형제님)과 함께 심도있는 메노나이트교회 이야기와 세계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마음교회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나뱁티스트 신앙에 대한 이해를 고취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는 도전과 과제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KAC 또한 21세기 아나뱁티즘이 추구하는 삶의 영역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과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 한공협 수련회

8월 19일-21일까지 한국공동체협의회 주관 수련회가 사랑방 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공동체로 사시는 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특별히 '공동체와 상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소그룹을 이끌며 공동체가 우리를 드러내며 치유하기 좋은 장소라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전 총무님이신 김복기 형제님은 공동체 내 갈등과 일상 속 평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는데 공동체 내 갈등해결을 위한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전대 정원범교수님께서 원로와의 대화 중에 메노나이트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 주시고 특별히 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은 메노나이트를 배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해 주셔서 가만히 앉아 엄청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묘한(?)경험도 하고 왔습니다.

4. ISF 모임 소식

KAC 사역으로 춘천에 있는 대학에 와서 유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ISF 사역은 섬기는 교사들이 놀랍게도 많은 에너지와 활력, 기쁨, 그리고 젊음을 충전받는 놀라운 일입니다.

매주 만나는 거반 40여 명의 유학생들은 중국학생이 최고로 많고, 그 밖에 태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아프카니스탄 등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로 이루

어집니다.

지난 학기는 그저 한국어 공부 중심으로 모였다면 이번 학기부터는 평화감수성 훈련을 한 20분씩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평화감수성 훈련이라는 느낌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는 레크레이션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도 서로의 언어를 한번씩 발음해 보고, 서로의 몸을 터치해 보고 서로 협력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시간을 짧게라고 갖게 되면 마음이 쉽게 열리고 수업시간이 더 즐거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젊은 에너지의 역동은 행복을 발산합니다.

작은 것에도 크게 웃을 수 있고, 가벼운 동작에도 함박 웃음을 터트리는 친구들은 즐거움의 역동을 만들어 줍니다. 유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지친 하루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는 교사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에너지를 받는 일을 매주 경험합니다.

5. 평화감수성 수업

7월, 8월, 9월에는 한림대의 갈등전환센터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및 교사들과 함께 하는 평화감수성 훈련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참여하여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교적 언어를 배제한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부탁하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학생들을 만납니다.

기도덕분인지 학생들을 만나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긍휼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가장 평화 가득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학교라 확신하기에 평화를 전하러 가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와 배려의 문화가 꽃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자 합니다.

비록 3-5번의 짧은 수업이지만 학생들과 함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자라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은 의미가 깊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평화교육이 더욱 자라 어떻게 가지가 뻗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6. 리본독서모임

6월에는 강남순 교수와 함께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 7월에는 조현 기자와 함께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공동체 이야기〉, 8월에는 박준형 형제와 함께 〈분별〉, 9월에는 김대식 교수와 함께 〈함석헌의 평화란 무엇인가?〉, 10월에는 권세리 자매와 함께 〈평화를 일구는 언어〉, 11월에는 김형원 교수와 함께 〈소명, 그 거룩한 일상〉을 끝으로 가열차게 달려온 리본독서모임의 2019년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춘천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강사님들과 흥미진진한 주제로 진행되는 리본독서 모임은 춘천에 영적, 지적인 단비를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7. 총회 소식

우리 KAC도 일년을 정산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내다보는 2019년 정기총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간 KAC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내년의 사역에 진심어린 조언과 비전을 과감히 전달해 주시는 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알리는

- 아나뱁티스트 아카데미 및 컨퍼런스
- 시스터 케어 리더십 계발과 연관된 자료 개발,
- 평화를 알리는 회복적 정의운동(RJI)을 위한 모임,
- 유학생들을 환대하며 친구가 되어 주는 ISF모임,
- 책의 저자와 역자 혹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하는 리본독서모임,
- 아나뱁티스트의 신앙을 알리는 책 번역 활동 등등

함께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회를 통하여 2020년의 비전들이 알알이 맺혀 지는 비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KAC 후원계좌 : SC제일은행 425-20-403665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정리:문선주 자매〉

KAF 소식

2019년 하반기 모임을 11월 8~9일 경기도 가평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은 시스터 케어 세미나 기간과 겹쳐서 참석자가 좀 적었습니다. 남상욱대표(예수촌교회)와 김복기형제, 한준호 형제(주빌리교회), 고학준 형제(평화누림교회)기 참석하여 교제하였습니다. 저녁시간에는 김복기 형제로부터 존 로스의『실천』을 가지고 특강을 들었습니다. 메노나이트의 예배와 삶에 대한 귀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날은 백양리 갈대밭을 산책하고 맛있는 점심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시스터 케어 리더십 세미나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MCSK)이주최하고, MCSK여선교회와 KAC 공동주관한 시스터케어 리더십 세미나를 11월 7-9일(목-토) 2박 3일 동안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세계메노나이트협회 여성분과에서 선교차원에서 MCSK에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교제를 번역하면서 2년 이상 미국에 계신 강사님들과 이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준비해 온 세미나였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오랜 전통 속에서 여성이 여성을 돕는 시스터 케어의 노하우를 메노나이트 여성 리더이자 상담심리학 전공자이신 캐롤린 헤겐과 로다 키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성들이 가진 정서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성적인 문제를 남자 목회자들에게 나눌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로 와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은 여성이 가장 잘 도울 수 있

습니다!! 여성을 이해하고 돕고 세워 나가는 '공동체를 위한 시스터 케어 리더십 세미나' 소식을 간단히 전합니다.

MCSK에서 시스터 케어 리더십 세미나를 진행하게된 목적은 여성들이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여성들의 필요를 살피고 자신감 있고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하여 세미나를 경험한 후에 다시 이 메뉴얼을 교회나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시스터 케어 리더십 세미나는 4가지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단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 깊은 곳에서 통찰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

2 단원은 나와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주제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댓가가 따르기에 그 피로도를 인정하며 도움을 주는 일에 한계를 정하고 다른 사람을 돌봄과 동시에 나 스스로도 잘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3 단원은 긍휼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듣는 일은 그 자체가 이미 상처와 슬픔을 극복하도록 돕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4 단원은 슬픔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돕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슬프고 아픈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힘이 내재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생수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특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미나는 30명의 정원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다 찬 후에도,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전화가 계속 하여 걸려 왔습니다. 그 만큼 한국교회에서 여성들을 정말 "잘"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강의에 대한 열정은 잊지 못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특색은 남성들이 전혀 보이지 않게 온전히 여성들로만 구성된 세미나라는 점과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의 각 도에서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다는 점과 20대에서 70대까지 함께 해도 위화감이 전혀 없는 동지애가 형성되었다는 점과 눈에 띄는 수고든, 눈에 띄지 않는 수고든 촘촘하게 자매님들의 역할들이 배치되어 아름답게 수놓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강사님들의 온유하신 미소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겸손과 나이를 잊은 에너지는 참석자 모두를 반하게 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순서, 모든 수고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 사람 안에 아름답게 일하셔서 감동의 은혜를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에 참석하신 분들의 소감을 함께 나누면서 시스터 케어 리더십 세미나의 분위기의 따뜻한 기운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석자들의 소감들

–독이 되는 이야기를 약이 되는 이야기로 전환하는 방법이 유익했습니다. 경청,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돌봄에 대해 마가복음 1장 35–45절을 두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기돌봄이라는 것이 개인마다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담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으로 경청에 관한 강의, 세미나 중에 한 활동, 우울과 슬픔 다루는 법, 자기 돌봄 등이 모두 상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 타임라인을 작성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나를 옆에서 지지해 줬던 이들을 떠올림으로서 동료, 공동체의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긍휼의 피로 (compassion fatigue)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나의 삶에 대해 공감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이 되는 이야기를 내뱉고 살아 왔는데 이제는 약이 되는 이야기로 나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강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 뿐 아니라 신앙의 동역자로 선배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에 짓눌려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함께지만 홀로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 안의 죄책감과 슬픔을 알게 되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인형던지기 활동을 하면서 나와 동일한 상황인 것을 실감했고 경계를 정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순간 소중하고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다와 캐롤린의 경험과 거기서 나온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여유로운 미소와 긍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나의 사역장으로 돌아가 두분이 보여주셨던 진심과 감동을 나를 찾아오는 약한 자, 상처받은 자에게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문선주 자매〉

새로운 선택, IVEP

류은지 자매
IVEPer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한국기독학생회(IVF)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국내 난민지원 NGO에서 일하다 2017년 중반에 퇴사했어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한국에서 무력감을 이겨내기 쉽지 않았거든요. 회의감이 차오르고, 하나님은 존재와 교회의 역할에 관한 질문이 가득 떠오를 때 IVEP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북미의 이주민 지원체계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더 성장하고 싶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

각자의 일터에 배정되기 전 참가자 전체가 미국 펜실베니아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대륙별 참가자들이 준비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문화 차이, 정의, 평화 등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같이 놀았고요. 마지막 날 밤에는 장기자랑을 한 후 늦은 시간까지 춤추고 비를 맞으며 게임을 했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싶더라고요. 다른 이들이 모여 친구가 되는 곳, 안전한 공간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 사랑에 빠지는 곳 말이

에요. IVEP 시작 전, 중간, 마지막 총 3번의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매번 마음 벅차게 행복했고 헤어짐이 아쉬워 엉엉 울었네요. 지금도 꿈같던 그 밤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저릿해져요.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앨버타주에 있는 캘거리는 캐나다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한 곳이에요. 높은 건물이 없어 하늘을 쉽게 볼 수 있고, 로키 마운틴과 아름다운 밴프 국립공원이 근처에 있어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문화 도시이기도 하고요.

저는 Centre for Newcomers(CFN)라는 이주민 지원 단체에서 자원활동가를 지원하는 일(Volunteer Development Program, VDP) 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자원활동가가 진행하는 영어 및 컴퓨터 수업 보조, 자원활동 정보 제공 프레젠테이션 진행, 데이터 관리, 행사 기획 및 진행 등을 담당했답니다.

처음엔 영어로 업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고 알아듣더라도 금세 까먹어서 실수를 여러 번 했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어찌나 많이 발생하는지. 자원활동가가 갑자기 오지 못해 부랴부랴 커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힘든 것보단 좋은 점이 더 많았어요. 유능하고 인내심 많은 슈퍼바이저에게서 많이 배웠고, 직원 대부분이 이주민 출신이라 제 처지를 잘 알고 챙겨주셨어요. 영어 수업을 커버할 일이 많았는

데 커리큘럼이 정착 및 통합 관련 주제(교통, 음식, 의료, 쇼핑, 지역사회 자원 등)로 구성돼 캐나다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주민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선 난민들이 겪는 문제만 얘기하다가 여기선 그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어요. 수업이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 보람도 느꼈고요.

VDP에서는 자원활동을 정착과 통합을 돕는 도구로 바라봤어요. 이주민들은 초기에 같은 언어 · 문화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원활동이 관계망을 다양화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해서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통합' 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생계를 꾸리고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착' 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이들에게는 자원활동이 캐나다 업무 경험 및 기술을 쌓는 기회가 되고요. CFN의 비전은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시민으로서 온전히 참여하는,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를 위해 이주민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환대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들이고 있었고요. 다양성이 공동체의 힘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온 몸으로 느끼면서, 이주민과 기존 공동체가 양방향으로 함께 노력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 캘거리 인터-메노나이트 교회

호스트를 따라 캘거리 인터-메노나이트 교회 (Calgary Inter-Mennonite Church, CIM)에 참석했어요. 보통 메노나이트 교회는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는데 이곳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이들에게 열려있는 곳이었어요. 20대 후반의 파트타임 사역자 로렌이 있었고 CIM에서 사역하다 은퇴한 브랜다와 경험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장로교를 다녔던 터라 여성 목회자들을 보는 게 낯설었고, 전임 사역자가 없다는 점도 신기했어요.

설교시간은 교인들의 나눔 또는 설교와 외부인의 강연이 격주로 구성됐어요. 강연자가 농담을 하기도 하고 청중들이 편하게 리액션을 하는 격식 없는

분위기였고 광고 시간엔 전할 소식이 있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일어나 할 얘길 했어요. 외부인의 강연이 있는 날엔 빈곤지원기관, 앨버타주 환경담당 부서, 발달장애인 지원 단체 등과 같은 사회단체에서 온 발표자가 활동을 나눴어요. 나눔 후에는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고요. 지역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극장으로 개조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 공동체 너머의 더 큰 세상을 섬기는 방식을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CIM은 성소수자(LGBTQ+)를 환영하는 교회였어요. CIM에 처음 간 날, 강단에 걸려있는 무지개 깃발에 놀라고, 설교 대신 듣게 된 트랜스젠더 청년의 나눔에 놀라고, 그다음 주엔 예배 대신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한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어요. 교인 중에 레즈비언 커플, 게이 커플, 트랜스 젠더가 있었고요. CIM은 20여 년 전에 갈등 속에서 성소수자 관련 논의를 했고 결국 그들을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요. 암 환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는 한 교인이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자신에게 중요한 화두인데, 10대 때 교회에서 성소수자 관련 논의를 보면서 그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는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길 들으면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혐오하는 언어를 배우는 대신 안전한 공간을 함께 만드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고 깊은 일상, 새로운 경험

매일 저녁 호스트와 같이 저녁을 먹고 개를 데리고 산책했어요.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는 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걷고 나면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이들을 만난 덕에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카누, 크로스컨트리 스키, 호수에서 스케이트 타기, 컬링, 도끼 던지기 등을 했고, 밴프 국립공원, 드럼 헬러 등 앨버타의 자연도 누렸어요. 휴가 땐 미국에서 한국 아나뱁티스트들을 만나 교제를 나눴어요. 한인교회에 출석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많은 것을 누린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다

캘거리에 막 도착했을 무렵에 이 시간이 지난 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을 떠날 때 하나님께 많이 실망한 상태였거든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잃고 떠나보내는 과정이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지킬 마음이 없으신 것만 같았어요. 제 자신이 지쳐서 떠나기를 결정했을 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 일을 시키고는 존재를 책임지진 않으시는 분처럼 느껴졌고요.

일 년이 지난 지금의 고백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 그분이 열심을 품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일하신다는 것, 그러니 믿음을 붙들고 겸손히 제 몫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 세상과 제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답고도 풍성한 복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고 싶어요. 소중한 경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MCC에 감사드려요. IVEP 일 년을 잘 새기고 제 몫의 평화를 살아갈게요.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하게 된 시간

이주영 자매
IVEPer

제가 IVEP프로그램을 들었을 때는, 어언 6년 전이였습니다.

그때는 우와! 꼭 가보고 싶다. MCC라는 단체가 진짜 메노나이트가 있다고?! 그곳에서 다른 나라 청년들을 팍팍 밀어준다고 ?! 돈 없이도 가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그곳에는 이미 평화를 믿고, 평화를 만들어 내는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고?! 같은 마음을 가진 전세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다고? 그렇게 모여 평화를, 갈등을 이야기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대박! 만나고싶어!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도 했고, 하지만 저의 현실은 그것을 지원할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언젠가는 가야지 직접 봐야지, 하고 까맣게 묻어두고 6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6년이 지나고, 현실적으로 해야만 하는 모든 일들에 실패를 하고나서 아주아주 힘들 때, 아무것도 더이상 해야 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없을 때, 그냥 언젠가 꼭 꼭 가보고 싶다. 그게 내 꿈이니까 하는 IVEP, YAMEN프로그램의 불꽃이 여전히 내 마음 구석에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꿈이 사라졌을 때,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작은 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원했을 당시,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작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곳에서, 무슨 봉사를 할 게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YAMEN프로그램을 지원했으나, 영어를 아주 아주 아주 못했던 저는, 영어 뿐만 아니라, 북미에서 갈등을 , 가난을,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고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배우는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전 세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갈등 가난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지, 정말 궁금했고, 그곳에 가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IVEP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가기 전 , 그리고 어쩌면 동기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저의 키워드는 폭력, 갈등 , 창조, 언어, 동료들, 희망이였습니다.

제가 일한곳은 저의 집에서 버스로 25분 거리에 있는 메노나이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곳이 였습니다.(MEI : Mennonite Educational Institute) 그곳에서 Teacher Assistant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키워드와는 상관없는 곳에 가게 되어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어떨떨했던것이 기억납니다. '오잉, 이곳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디? 응? 하나님? 저의 꿈과는 좀 ..거리가 먼 느낌인데요? 왜 제가 여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곳이 여기라는 것을, 저의 passion이 있는 곳이 아이들 곁이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결국은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한곳을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처음에는 언어가 안돼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과는 언어가 안돼도, 먼 나라에서 온 용기있는 젊은 봉사자로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같은 어른으로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나 아이들..과는 나도 아이들의 발음을 못 알아듣고, 아이들도 생전 처음 들어본 나의 발음에 적잖이 당황하여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측은해 하며 오랫동안 바라보았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은 신비롭다는것을 저는 아이들에게 알려주며 어른이면 완벽할 것이라는 아이들의 작은 편견(?)을 고쳐주었으며, 세계에 대한 지식과 마음을 넓혀주었던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로 교실에서 선생님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라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잘 살고 잘 배우기 위해서 영어공부를 혼자 열심히 하였고, 많은 도움도 받고 눈에 뛰게 성장해서, 3개월 후 1학년, 3학년, 4학년반에 매일 참석하여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8개월 후인가, 아이들 받아쓰기를 하던 도중 한 아이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유독 나의 발음에 지적을 해주던 아이였는데,) 선생님 발음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듣기 실력 또한 일취월장하여, 전세계로 진출해도 되겠다고. 격려들 주고받았던 훈훈하고 감사한 시간이 문득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이 1년 동안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책임감이란게 무엇인지, 좋은 리더는 어떤사람인가에 관한 것과 친구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지, 나는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지, 아이들은 사랑 그 자체, 독립적인 인격 그 자체라는 것과 그런 아

이들이 자라 나와 같은 어른이 된다는 것, 아이들과 함께 1년동안 보내면서, 아이들만이 내게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을 배웠고 선생님들과 함께 1년동안 보내면서, 선생님들만이 내게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1년동안 보내면서, 그 친구들만이 내게 보여줄 수 있는 것과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달라졌고, 저는 많이 치유되고, 많이 자랐습니다.
힘든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학교에 한 대뿐이 없는, 선생님들에게는 거의 1년의 학급운영과 함께 가는 그 정도로 가치있는 라미네이터를 고장냈고, 하여, 교장선생님을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 어색한 시간들을 보냈고, 설마 해고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고,

– 3개월후에, 결국 엄청 좋은 새 라미네이터를 사면서, 고등학교의 오래된 라미네이터도 동시에 바꿈으로 조금 싸게 바꿨다는 후일담 , 역경을 이겨낸, 진정한 Laminator expert로 인정받았다는 후일담.

또, 친구와의 갈등, 그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의 힘듦.

–그런 스스로가 미워, international fighter라고 자책하였으나, 나의 과정을 늘 지켜보고 나를 이미 알고있었던 MCC의 동료들은 나를 International Peace builder라고 불러주었다. 실제로 그 친구와는 아주 깊은 우정으로 아직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전화하며 울며 기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화해의 진정한 진심과 힘을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후일담.

영어가 늘지 않는 것 같은 조급함을 다루는 시간들. 처음 학교의 시간들은

가치가 없고, 배울 것이 없어서 (잡무, 청소) 낙담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주심을 믿으며 다시 즐겁게 청소로 봉사했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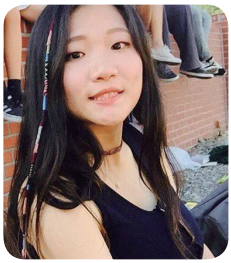
혼자 보내는 시간을 경영하는 법.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응원해주고 사랑하는 법. 도전하는 법.

내가 배워가야 할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성실하게, 재미있게 배우려고 했고, 힘들지만, 그랬기에, 하나님을 불렀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합니다. 그 기억들은 앞으로의 저의 삶에 북극성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제가 가슴 뛰는 일에 도전하며,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신앙



배꽃잎 자매
평화누림메노나이트교회

1. 아나뱁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아나벱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요?

아버지 용하의 책장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용하는 제가 본 적 없는 사람들과 자주 만났고, 어느 날은 미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며, 친구들과 제주 강정과 밀양, 대한문, 재능교육 농성장 등 마음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으로 연대했습니다. 너무도 잔인하고 서슬 퍼런 폭력들을 눈앞에서 마주했습니다. 그 시점에 용하의 소개로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를 알게 되었고, 1년간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봉사프로그램에 참가하여 1년간 캐나다에서 지냈고, 이민자센터에서 일했습니다. MCC에서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난 메노나이트는 일상의 평화를 잘 지켜내고, 더불어 이웃의 평화를 잘 지켜내는 공동체였습니다. 실제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는 했습니다. 그 시점 한국의 광장에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함성이 들끓었고, 캐나다의 일상은 너무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질문 속에 놓였습니다. 나는 어떤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그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평화는 어떤 상태인가? 그 질문들을 한국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용하였고, 이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계기는 없습니다.

용하의 책장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2.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아나뱁티스트 혹은 메노나이트에 대해 물을 때 이를 설명해 내기가 어렵습니다만, 동시에 신기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좋습니다.

3. 현재 하시는 일이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옥바라지선교센터' 는 2016년 무악동 옥바라지골목 강제철거 현장에서 만난 기독청년들이 만든 에큐메니컬 기독청년단체입니다. 2017년 아현동 포차거리부터 서촌 본가궁중족발, 노량진 수산시장 등 고난 받는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쫓겨남이 없는 세상' 에 대한 선언과 '하나님의 정의는 법 너머에 있다' 는 구호로 투쟁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체에서 구석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누군가가 아나뱁티스트에 관해 묻는다면 제자도, 공동체, 평화 이 세 가치로 소개합니다. 옥바라지선교센터의 사역도 저 세 가치로 소개할 수 있겠죠. 예수는 계속해서 걸었고, 권력자들에게 분노했고, 약한 자를 위로했으며,

세상을 위해 기도했고,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약한 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옥바라지선교센터는 기독단체임에도 비기독인 회원들도 많습니다. 또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합니다. 서로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외칩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진 자의 평화가 아닌 약한 자의 평화를 위해 연대합니다.

4. 한국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나뱁티스트 신앙 혹은 공동체가 한국 교회, 혹은 지역 사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지역공동체, 사회 등등)

실은 한국 아나뱁티스트 신앙 혹은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아나뱁티스트를 학문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의 복을 빌지만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며, 약자를 정죄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부와 권력에 조아리는 가부장적인 기존 한국 개신교와는 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용하를 비롯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느꼈고, 이를 견딜 수 없어 마침내 서로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싸울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철거민, 해고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과 평화할 수 없거나 평화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이들의 평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독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탄생 혹은 생성과정에 깊이 참여하지 않

아 모르는 부분이 많음에도 독특성을 하나 꼽자면 학술적으로 시작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차곡차곡 만들어진 문화공동체나 생활공동체가 아니라, 대안을 찾던 사람들이 발견한 학술공동체 같습니다. 일단 아나뱁티스트나 메노나이트는 명칭부터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주 낯선 용어입니다. 이를 알고, 깊이 파고 있는 이들은 그만큼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공동체를 원합니다. 현재 '한국' 아나뱁티스트는 학술적으로 시작하여 문화와 생활을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한국 상황에 맞는, 문화에 맞는, 혹은 이 학술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맞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활의 역사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독특성인 것 같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지키기 위한 현장예배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노량진수산시장 농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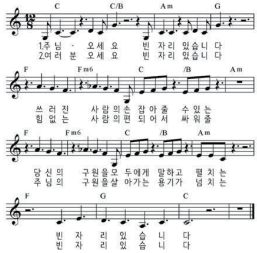
사회 | 구석(욱바라지선교센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 타종 3번

기원 |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햇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아멘

모임노래 | 빈자리 있습니다



현장의 증언 |

공동기도 | 기도노래 | 키리에 3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슬퍼런 폭력집행 앞에서, 옷까지 벗어 던지고
온 몸으로 시장을 지켜냈던 상인들 속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성난 파도와 같은 모습으로
불의한 자들을 휩쓸어 무너뜨리고,
당신의 정의를 바로 세우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 베푸소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이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협과 용역의 폭력과 경찰의 방관 속에서
시장에 펜스가 쳐지고 길 한복판으로 밀려나
농성장을 차리던 날,
당신이 가장 많이 우셨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공포와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선 상인들을 꼭 안아 주시고,
그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 베푸소서

소리치시는 성령님이여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함께 살자고,
우리가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이라고 외쳤던
뜨거운 함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하늘을 찢고
땅을 가르는 굉음이 되어 수협을 고발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승리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 베푸소서

말씀봉독 | 진지환(욱바라지선교센터)

요한복음 05:01-09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가치를 추구하다보니…

김효성 형제
예수마음교회

1. 아나뱁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요?

어릴적부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세속적 가치에 대해 회의를 느꼈습니다. 대학을 와서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함에 실망을 느끼고 있을 때 학교 선배가 IVF라는 단체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군입대를 했습니다. 군전역 후 기성교회의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행보에 질려 새교회를 찾아보다 우연히 춘천 예수마음교회를 알게되었습니다. 예수마음 자매형제분들은 저를 환대해 주셨고 제가 알고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신앙관과 닮아있어서 계속 다니게되었습니다.

2.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아나뱁티스트라는 말 처럼 나 스스로가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아감에 있어 책임감과 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예수의 제자로, 예수처럼 살아가려는 많은 자매형제님들을 알게되었고 많은 것을 배웁

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폭력의 정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 광주나 이번 홍콩을 보면서 국국가폭력 대항할 때 폭력의 필요와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좋은 점인지 어려운 점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람들을 만날 때 저에게 가끔 교단을 물어볼때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교단이라 설명하기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ㅎ

3. 현재 하시는 일(농사, 카페, 직장일 등등)이 아나뱁티스트 신앙과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잠시하다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은 아니지만 제 일상의 대부분을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단체의 회원활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쫓겨나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약자와 함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던지 예수의 가치, 아나뱁티스트 신앙의 가치를 적용하

고 싶습니다. 직업 자체가 신앙과 연관되는 직업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직업생활에 신앙의 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한국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나뱁티스트 신앙 혹은 공동체가 한국 교회, 혹은 지역 사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지역공동체, 사회 등등)

사회 곳곳에 갈등과 혐오가 만연합니다. 예수님의 평화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가치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예민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나뱁티스트 신앙을 가진 사람등은 혐오와 폭력 등 예수의 가치에 반대되는 것에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공동체에서 예수의 가치를 전하고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5. "한국" 아나뱁티스트의 독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아나뱁티스트 공동체에 한국 아나뱁티스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부흥하던 기독교가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안적 공동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겼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봅니다. 오래 전부터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생각을 공유합니다.

평화적 분단해결,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등 한국사회에 뿌리박혀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 다른 국가의 아나뱁티스트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변화시킬 때 다른 국가의 아나뱁티스트들에게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되는 기쁨

문종윤 목사
정인교회

저는 장로교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현재 경기도 부천에서 교회를 개척하여(2019년 1월 7일 설립) 1년 9개월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에 건너가 침례교 신학대학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t Worth, TX)에서 공부를 하며 뱁티스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아나뱁티스트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했고 단지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미쉬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아미쉬에 관한 책을 읽어보며 아미쉬도 아나뱁티스트의 분파로 알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아미쉬 사람들이 신선하게 다가왔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배타적이고 고립적인 모습들이 현대 도시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신약성경이 추구하는 바른 교회의 모습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메노나이트 교회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노나이트 교회가 현대 도시 사회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아나뱁티스트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에도 아나뱁티스트 단체가 있고 메노나이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김복기 선교사

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아나뱁티스트 단체(KAF)와 메노나이트 교회와 교류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나뱁티스트의 역사와 성경해석, 교회론에 관한 여러 책들도 읽고, 한국아나뱁티스트 저널을 통해 아나뱁티스트와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제가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교회를 통해 배운 것은 교회안에서 상호부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교회안에서 성도들간의 상호부조와 상호책임을 강조하는 데 오늘날 현대 도시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상호부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교회를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해 보고자 하여,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 매달 교인들의 헌금의 일정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상호부조 기금으로 적립을 하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돕는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뱁티스트에 관련된 책들과 한국아나뱁티스트저널을 읽어가면서 깨달은 점은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하여 신약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에 관해서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장로교에 소속된 목사이지만, 제 안에 아나뱁티스트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장로교에 기반을 둔 아나뱁티스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와의 만남과 교류는 아나뱁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영적인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배울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아나뱁티스트 저널을 통해서 앞으로도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형제 자매님들과 계속적인 만남과 교류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1세기 메노나이트 정체성과 인식론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

염 혜 정 자매
캐나다 토론토

이 글은 2019년 11월 22–26일에 샌디에고에서 열린 AAR & SBL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중 Mennonite Scholars & Friends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AAR & SBL은 종교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는 연합회이다. 매년 가을에 북미 도시에서 열리는 학회에는 북미권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종교 분야 학자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 메노나이트도 198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Mennonite Scholars & Friends (MSF) 라는 이름으로 AAR & SBL학회에서 매년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이어왔다. (단, 2008년과 2010년을 제외) [1)]

2019년 MSF포럼은 "이주, 국경, 소속 (Migration, Borders, and Belonging)"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아메리칸 원주민인 키오와 (Kiowa)족과 앵글로 아메리칸 사이의 갈등과 종교적 변화를 다룬 제니퍼 그레이버 (Jennifer Graber) 의 저서 *The Gods of Indian Country* (2018)[2)]와 미국 라티노 메노나이트의 역사를 다룬 필리페 히노호자 (Felipe Hinojosa)의 저서 *Latino Mennonites* (2014)[3)]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멜라니 하워드 (Melanie Howard) 의 진행으로 두 저자가 먼저 자신들의 연구를 요약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해 각각 조셉 위브 (Joseph Wiebe) 와 염혜정 (Hyejung Jessie Yum)이 응답한 후,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아 네 명의 패널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패널들이 발표한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제니퍼 그레이버, 텍사스 대학, "Missionary Encounters with Native Christian Epistemologies"
- 필리페 히노호자, 텍사스 A&M 대학, "Borderlands in the Mennonite Imagination"
- 조셉 위브, 알버타 대학, "Race, Religion, and Land in The Gods of Indian Country"
- 염혜정, 토론토 대학, "A Postcolonial Response to Felipe Hinojosa's Latino Mennonites" [4]

다음의 글은 패널 중 한 명인 염혜정이 히노호자의 저서 *Latino Mennonites*에 대해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응답한 내용이다. 현재 염혜정은 북미에 한인 이주자 여성으로 거주하고 있다.

필리페 히노호자의 라티노 메노나이트에 대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응답

(A Postcolonial Response to Felipe Hinojosa's Latino Mennonites)

인종적 차이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북미 메노나이트 학계에서 필리페 히노호자의 라티노 메노나이트는 새롭게 나타난 용기 있는 학문적 발언이다. 이 책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응답을 위해서, 먼저 책이 서술하고 있는 백인성이 정상화된 사회에서 라티노 및 흑인 메노나이트들 겪어온 분투를 탈식민적 상황에 재 위치(resituate) 시키고자 한다.

탈식민주의 사상가들은 '인종' 의 개념이 유럽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고 폭로해왔다; 백인 주체의 정상화(normalization)하면서, 비백인 주체들을 타자화, 인종화 (racialization) 해 온 것은 수 백 년간 지속해 온 식민의 폭력을 통

해 형성된 유럽 중심의 인종적 이데올로기와 분리할 수 없다. 또한, 많은 탈식민주의 사상가들이 신식민주의적 영향력이라고 비판해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불균형한 인종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해 오고 있다. 근대의 식민주의는 식민지 정착 과정과 노예 제도, 원자재 획득과 무역을 통해 유럽의 자본주의를 탄생 시킨 주요한 원동력이었다.[5] 오늘날 제국주의적인 글로벌 자본주의는 여전히 서구가 인종적 패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 무역이나 국제 노동 분업, 이주 노동에는 종종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인권 침해와 차별적 법의 시행이 뒤따른다.

메노나이트 공동체 내의 인종적 관계 또한 이러한 식민주의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회적 상황에 위치해 있다. 유럽계 메노나이트는 북미로의 이주를 통해, 민족-종교적으로 박해 받던 소수자 그룹에서 인종적, 종교적으로 정상화된 – 즉 보이지 않게 특권화된 – 백인 기독교인으로 그 사회적 위치가 바뀌어 왔다. 히노호자는 유럽계 메노나이트들이 백인 복음주의에 매력을 느꼈으며, 이는 그들이 라티노와 흑인 사회에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서술한다. 백인 복음주의와 미국의 대중 문화는 20 세기 스위스-독일계 메노나이트들과 러시아계 메노나이트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신학에 있어서 백인 기독교에 통합되어 가는데 영향을 미쳤다.[6] 또한, 유럽계 메노나이트들이 북미에서 원주민들의 추방과 문화적 학살을 대가로 백인의 규범와 국가적 정체성을 건설해온데 연루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식할 때, 현 시대 메노나이트의 인종적 관계는 식민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7]

더 나아가, 식민 시대에 유럽인들이 세계의 식민화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었고, 서구 식민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이후, 비서구인들이 서구의 대도시로 역 이주하는 현상은 탈식민 시대의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이다. 콩고,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주하는 다민족 메노나이트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북미에서 유럽 중심적 메노나이트의 정체성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적 민감성을

가지고, 나는 메노나이트 정체성과 인식론이 현재 북미에서 지배적인 유럽 중심의 관점에서 민족-문화적으로 다중심적 (polycentric)이고 혼종적 (hybrid)인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는 바이다.

• 혼종적 메노나이트 정체성

히노호자는 인종적 차이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메노나이트 학계에 라티노 메노나이트의 분명한 학문적 목소리를 더함으로써 다민족 메노나이트의 목소리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라티노 메노나이트라는 혼종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16세기 유럽에서 계승한 메노나이트 정체성을 본질화하기보다, 21세기 북미에서 일어난 인종적 정의를 위한 투쟁, 농민 운동, 복음주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을 추적한다. 20세기 메노나이트에 미친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역사적 기술은 현 시대 메노나이트 – 유럽계 메노나이트와 인종적으로 소수화된 메노나이트 모두 – 의 정체성을 종교적, 문화적으로 혼종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탈식민주의 사상가 호미 바바의 혼종성 (hybridity) 이라는 개념은 '정통적인 것' 과 '불순한 것,' '우월한 것' 과 '열등한 것' 사이의 이분법적 구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정 (ongoing process) 을 의미한다.[8] 식민적 담론은 유럽을 권위있고 보편적인 주체로 구성해 온 반면, 비서구를 낯설고 지엽적인 대상으로 타자화하며 불평등을 정당화 해 왔다.[9] 이러한 식민 담론의 근간이 된 이분법에 대한 비판으로 바바의 탈식민주의적 저항은 상호 간에 섞이는 정체성과 문화를 받아들인다.

북미의 메노나이트의 상황에서, 비 유럽계 메노나이트들은 종종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이러한 혼란은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유럽계 메노나이트를 중심으로 정상화 된 메노나이트의 문화와 정체성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이다. 히노호자의 책에는 아시아계 메노나이트에 대한 서술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시아계의 목소리를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최근 아나뱁티스트 비전에 실린 글에서, 중국계 캐나다인

메노나이트 브라이언 콴 (Brian Quan)은 중국계 캐나다인 메노나이트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질문한다.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메노나이트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중국인으로서 또, 메노나이트로서 양쪽 모두로부터 받은 유산을 인식하기 위해, 그는 '평화'를 중국 철학의 한 줄기인 유교의 '화합'이라는 개념과 연결 지어 해석한다.[10] 콴의 평화에 대한 문화적 해석과 히노호자의 메노-라티노라는 혼종적 메노나이트 정체성에서 받은 통찰을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북미 메노나이트의 정체성과 평화에 대한 이해는 유럽계 메노나이트의 박해와 전쟁에 반대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경험 뿐 아니라, 라티노와 아프리카계 메노나이트가 겪는 인종적 박해와 이주 노동자를 억압하는 불의에의 저항, 중국계 메노나이트의 화합을 향한 갈망, 한국계 메노나이트의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 및 분단된 한반도에서 화해를 향한 열망에 의해서도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미에서 다민족 메노나이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메노나이트 담론에서 이들의 경험이 주목받은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식론적 전환에 관한 다음의 응답으로 이어진다.

인식론적 전환

최근 Mennonite Church USA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이 각각 행정 디렉터 (executive director) 와 노회의 목회자 (denominational minster)로 지명되었다. 이러한 리더십의 변화는 인종적 관계에 있어 기관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히노호자의 책이 기술하고 있는 1960-70년대, 메노나이트 내에서 소수자 사역 위원회 (Minority Ministry Council) 가 인종적으로 소수화 되고 차별 받으며 겪었던 고충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북미의 메노나이트가 이전보다는 더 다양한 인종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노나이트 학계에는 여전히 민족적, 문화적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히노호자의 『라티노 메노나이트』는 북

미에서 비 백인계 메노나이트 학자에 의해 인종적 관계에 관해 쓰여진 몇 안 되는 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라티노 메노나이트와 인종 간의 경험을 학문적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메모와 회의록을 모으고, 인터뷰를 하는 등의 노고를 아끼지 않은 그의 연구는 유럽계 목소리가 지배적인 메노나이트 학계에 도전이 된다.

지식 생산은 학문의 중요한 역할이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권력과 지식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권력은 누구의 지식이 권위있고, 믿을만하며, 보편적인지, 또 누구의 지식이 혼합적이고, 이단적이며, 종속적인 지식인지를 결정하고 형성해 왔다. 역사를 통해, 메노나이트들은 패권적인 종교 담론이 어떻게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박해하도록 정당화 해왔으며, 그들의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닌 '이단적' 이라고 규정해 왔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구의 지식과 정체성이 '정통적' 이고 '신뢰할 만한' 메노나이트의 지식과 정체성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누구의 지식이 그렇지 않은가? 바바의 독해에서 데이비드 허다트 (David Huddart)는 "정통성..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일지라도."라고 말한다.[11] 대신, 탈식민주의적 상상력은 중심과 주변부의 이분화 된 양극의 사이(interstitial)에서 발생하는 창조성에 주목한다. 사이에 낀 (in-between) 공간에서는, 적대적이고 다른 의미들이 접합하면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된다.[12] 나는 21세기 메노나이트 학계가 인식론적 상호성 (epistemological mutuality) 안에서 다민족 메노나이트의 정체성과 다른 문화 간의 지속적인 문화 상호적 혼종화 과정 (ongoing intercultural hybridisation) 을 통해 생기는 창의적 잠재력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럽 중심의 인식론에서 인종 및 문화적으로 다중심화 (polycentric) 되고 혼종적인 (hybrid) 인식론으로의 전환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일 것이다. 현재의 인식론적 불균형을 감안할 때, 인식론적 상호성은 대부분 유럽계 남성의 시각으로 점유되어 있는 지배적인 담론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권력/지식은 젠더, 계급, 인종, 장애, 성적 지향성 등의 다중적 요인들

이 상호작용하면서 교차적으로 작동한다. 특정 지식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인 주석들과 반복적인 인용을 통해 형성된 담론은 교회와 사회적 현실이 특정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흩어져 있던 라티노 메노나이트의 목소리를 학문적으로 구성해 낸 히노호자의 노고에 감사한다. 나는 한국에서 자라, 9년전 미국 로스 엔젤레스에서 메노나이트 신앙을 선택한 이 후로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메노나이트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북미의 한인 이주 여성 메노나이트로서, 『라티노 메노나이트』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백인 중심의 담론이 지배적인 메노나이트 학계에서 나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었고, 한국인, 이주자, 여성, 메노나이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메노나이트의 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나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주, 국경, 소속"이라는 포럼의 주제에 따라 나의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식에 있어 경계를 넘는 일에 더 열린 태도를 가질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학문에서 소속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될 것이다.

1) 지난 포럼의 주제들과 발표 및 토론자들의 목록은 다음 링크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https://uwaterloo.ca/toronto-mennonite-theological-centre/events/msf/past-mennonite-scholars-and-friends-msf-forums

2) Jennifer Graber, *The Gods of Indian Country: Religion and the Struggle for the American West*. (Oxfor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3) Felipe Hinojosa. *Latino Mennonites: Civil Rights, Faith, and Evangelical Cultur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 Press, 2014).

4) https://uwaterloo.ca/toronto-mennonite-theological-centre/events/msf

5) Anita Loomba, *Colonialism/postcolonialism*. (New York, NY: Routledge, 2015), 22.

6) Hinojosa, 12.

7) Rita Dhamoon, *Identity/difference Politics: How Difference Is Produced, and Why It Matters* (Vancouver: UBC Press, 2010), 74.

8)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Brantford, New York: Routledge, 2004), 37-38 and 54-55.

9) Bhabha, 29-30.

10) Brian Quan. 2018. "The Global Church Lived out in a Local Congregation: The Chinese Mennonite Church in Toronto." *Vision* (*Winnipeg, Manitoba*.) 19 (2): 11-12.

11) David Huddart, *Homi Bhabha* (London: Routledge, 2006), 43.

12) Jonathan Rutherford. "Interview with Homi Bhabha: The Third Space" in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ondon: Lawrence & Wishart, 1998), 211.

자본주의에 대한 성서적 이해, 그리고 대안

남기업 소장
토지+자유연구소/희년함께 공동대표

입각점을 상실한 비판의 한계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는 기독인들은 아마도 '부분' 이 아니라 '전체' 를 고민하는 '자유인' 일 것이다.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 '전체' 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체제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독인은, 가난한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활동은 자기 만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성서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서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로의 이행전략을 세울 수 있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성서적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수많은 책과 논문이 어찌해서 막연하고 호소력이 떨어지는지를 알게 된다. 결정적인 이유는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의 내용과 그 정신을 오늘날의 사회과학의 언어로 축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까닭에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과 비효율과 환경파괴와 비인간화를 열거、비판하면서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당위론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말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성서의 내용을 담은 체제 대안에 입각해 있으면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비인간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성서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면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하겠다.

희년에게서 도출한 경제체제의 뼈대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홀로 고독하게 존재하는 유일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관계적 · 공동체적 존재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하나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귐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의 심장인 삼위일체론이다. 이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각 위 하나님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삼위 간의 관계가 종속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관계성(relatedness)과 고유성(uniqueness)의 조화' 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처럼 인간도 관계적 · 공동체적 존재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고유성도 지니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이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듯이, 각각의 개인들도 타인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시 말해서 대체될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각인의 고유성을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가 종속적이 아

니라 대등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이어야 한다. 수직적 관계에서 하위에 속한 개인의 고유성은 파괴되거나 왜곡되기 때문이다.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양순한 객체 혹은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관계성과 고유성을 조화시키려는 대안이 바로 희년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 율법의 정점에 위치한 희년, 안식일과 안식년을 포함하고 있는 희년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종에게 7일에 하루를 쉬게 한 것은 개인의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긴급조치다. 7년에 1번씩 부채를 탕감하고 종을 해방하는 것 또한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다. 주인과 종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7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 해인 희년이 되어 어쩔 수 없어서 팔아버린 토지를 되돌려 받는 것은, 지주에게 경제적 · 정신적으로 예속 상태에 빠진 소작인에게 실질적 자유를 부여하고 종속적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라는 것이다. 그렇다. 희년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와 주인과 지주도 채무자와 종과 소작농 못지않게 고유성이 왜곡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맺은 관계도, 주인이 종과 맺는 관계도, 지주가 소작농과 맺은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희년은 요즘 말로 하면 '을' 뿐만 아니라 '갑'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justice)는 주체 간의 '올바른 관계'로 정의(definition)할 수 있다. 정의(justice)를 이렇게 정의(definition)하면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는 경제와 관련된 개별적 · 사회적 주체 간의 수평적 관계가 가능한 상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수평적 관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수평적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지소유자와 비토지소유자 간의 수평적 관계를 가리켜 우리는 노사정의, 노동정의, 기업정의, 토지정의라고 정의(definition)하고, 이 네 가지 모두가 구현된 상태를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라고 말하려고 한다.

4가지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정의다. 왜냐면 토지정의의 미확립은 중소기업에 불리하고 대기업에 유리하며,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사용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토지정의는 모든 정의의 기초인 것이다.

네 가지 정의의 눈으로 본 '한국' 자본주의

먼저 가장 중요한 토지정의를 검토해보자. 성서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자 모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평등지권(平等地權)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눠 주어야 하나?

아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왜냐면 개인마다 토지를 필요로 하는 양과 위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이용하도록 하되,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대(地代, land rent), 즉 토지 불로소득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향유하는,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토지소유자와 비소유자간의 종속적·수직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전환된다. 농경사회로 말하면 각자 자기 땅에서 당당하게 농사짓는 자영농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는 이런 토지정의와 거리가 멀다. 토지 불로소득은

2016년에만 374.6조 원(GDP의 22.9%)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상 불로소득이니, 즉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니 결국 그만큼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이 토지소유자들에게로 이전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토지정의의 훼손이 불평등의 주범인 것을 알게 된다. 그뿐 아니라 토지정의의 훼손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부족도 초래한다. 사업을 하려면 모두 토지—건물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건물도 토지 위에 짓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생산 활동은 토지 위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가 필요한 데 땅값이 높으면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불평등 심화와 주거불안과 실업의 상당한 원인은 토지정의의 훼손에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기업정의 또한 훼손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이고, 착취는 구조화되어 있다. 대기업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위험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긴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위험 부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끊임 없는 처우 개선 요구가 초래한 부담 등을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것으로 전가시킨다.

또 한국사회는 노동정의도 훼손되어 있다. 노동정의는 기업정의와 관련이 있는데 기업정의의 훼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심화를 가져오고 그것은 다시 임금 격차 심화의 원인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경우 1980년에는 대기업 임금의 80.2%였던 수준이 1995년에는 대기업의 64.3%, 2000년 55.5%, 2014년에는 56.5%로 33년만에 33.7%p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는 노사정의도 훼손되어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식회사에 소속된 노동자에게 인사권과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경영자

는 이사들이 선출하고, 그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선출한다. 특히 재벌의 경우에는 5%도 안 되는 주식을 가진 총수 일가들이 경영권을 독식하고 있으면서 어떤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회사에서 노동자는 양순한 객체가 될 뿐이다. 자기가 하는 활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에 참여하지 못하니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수평적 관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성서적 경제체제로의 이행전략

위와 같은 '한국'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로의 이행 방안을 제시해본다. 먼저 토지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앞서 다룬 불의한 토지제도가 초래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우선 토지 때문에 발생했던 불평등은 완전히 해소된다. 다음으로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예전에 토지 불로소득으로 먹고살던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어 시장의 역동성이 한층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괜찮은 일자리는 증가한다. 또한 토지 불로소득을 노린 녹지나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사라져 환경 보존에도 크게 기여한다. 주택 문제도 상당히 해결된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지가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주택가격은 결국 하락하기 때문이다. 주택은 '택지+건물' 인데, 택지의 가격은 일정하고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기 때문에 결국 주택가격은 다른 일반물자와 마찬가지로 신규주택일 때 가장 비싸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집을 불필요하게 여러 채 소유할 이유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주거 불안정은 상당히 완화된다. 요컨대 토지정의가 세워지면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이 해소되고 환경 보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음으로 노동정의 · 기업정의 · 노사정의를 세우는 전략을 제시해본다.

기업 간, 노동자 간, 노사 간 정의 세우기는 유능한 민주정부의 중재 아래 노동(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회협약'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협약에서 각 주체가 수용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노동이 수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노동-동일임금이란 원칙 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 시정을 수용한다. 둘째, 임금 체계를 시간이 지나면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연공급에서 기여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숙련급으로의 전환을 수용한다. 셋째, 개별 기업 자체가 제공하는 복지의 비중은 줄이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수용한다.

다음으로 기업이 수용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에 가한 대기업의 반칙을 근절하는 각종 법률을 수용한다. 둘째, 구조조정을 할 시에는 해고를 의미하는 수량적 유연성이 아니라 작업장 재배치를 의미하는 기능적 유연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수용한다. 셋째, 노동자에게 인사권과 의결권 부여를 수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약속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은 첫째, 환수한 토지 불로소득으로 국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둘째, 정부가 직업 재교육 및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감당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관계가 되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 넷째, 교육균등과 의료균등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위와 같이 기업 간, 노동자 간, 노사 간 정의가 확립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대기업 발전의 성과가 중소기업에게까지 이어지는 '낙수(落水)효과'가 복원된다. 둘째, 괜찮은 일자리가 늘고 나쁜 일자리는 줄어

든다. 셋째,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 으로의 동태적(動態的) 발전이 훨씬 수월해지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역동성도 크게 높아진다. 넷째, 노사갈등이 크게 완화된다. 임금의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되어 대기업의 임금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으면, 모두가 기본소득을 누림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춰 놓으면, 토지정의 구현으로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져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나면, 거기에다가 노동자가 직접 이사를 선출하면 노동자와 사용자의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전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고질병인 병폐인 재벌문제가 해결된다. 주주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인사권과 의결권이 부여되는 개혁이 단행되면, 개별 주식회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계열사 간의 관계도 수평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계열사 간의 협력도 개별 주식회사의 결정에 달린 것이고 종업원총회에서 의결된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 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왜냐면 인수합병의 의결권이 주주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있기에 주식을 아무리 많이 매집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나오며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의 이상은 희년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가 보장된 사회, 모든 사람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 참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인에게 주신 고유함을 발견하고 계발시키는 사회가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의 모습이다.

앞에서 나는 희년의 원리를 근거로 한 경제체제의 모델을 제시했다.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는 각 경제주체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노

동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수직적이기 때문에 착취가 구조화되고, 불로소득이 만연한 것이며, 경제발전의 핵심인 분업과 협업의 고도화는 더디거나 왜곡되고, 성장의 과실을 일부가 독식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불평등, 주거 불안, 일자리 부족, 지방소멸 등의 현상은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관계의 왜곡' 내지 '파괴'가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의 '한국' 자본주의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불평등과 실업과 환경파괴를 들어 자본주의를 막연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법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거대한 전환' 이전에 이 땅의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를 자발적으로 실천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주거문제, 부채에 억눌리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성도가 공동체에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는 동시에 성서가 말하는 경제체제로 전환하라고 사회에 촉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 본 글의 상당 부분은 필자의 글 《남기업. 2019. "희년경제, 어떻게 가능한가." in 남기업 외. 『희년』. 홍성사》을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흉기가 된 언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권효 편집국장
뉴스앤조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은 이런 의지를 담아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한국신문협회 · 한국방송협회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 기관이 2014년 9월 16일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전문 중 일부다. 세월호 참사는 '보도의 참사'라고 할 만큼 한국 언론의 처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받아쓰기 관행으로 발생한 '전원 구조' 오보부터, 미성년자 피해자와 유가족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취재 경쟁, 사망 보험금부터 계산하는 저열하고 자극적 보도 등은 언론이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로 기능하는 모습이었다.

기자들은 보도 참사를 반성하며 준칙까지 만들었으나, 5년이 지난 한국 언론의 현실은 어떤가. 얼마 전 전해진 유명 연예인의 비보는 다시 한번 언론이 흉기임을 드러냈다. 언론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선정적으로 보도했으며, 사소한 일상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 논란을 부추겼다. 부고 기사에까지 '노브라 논란'이라고 쓰고 가슴 부분에 모자이크를 한 사진을 올린 언론사도 있었다. 여전히 '기레기'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은, 기자이기 전에 사람이기를 포기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실검'에 목매는 기자들, '사실 확인' 의무 내팽개쳐

인터넷 발달과 세대 변화로 온라인으로 기사를 읽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종이 신문' 구독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종이 신문의 구독 및 광고 수익을 온라인에서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유력 중앙 · 지역 언론의 종이 신문 광고란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구조상 이런 정도의 단위로 광고를 받기가 어렵다. 종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떨어질수록 광고 단가도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구독자가 늘어나는 온라인에서는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거의 모든 언론사가 겪는 기본 문제다.

변화는 불가역적이다. 대책을 세울 시간도 없이 변화는 다가왔다. 언론사들은 어떻게든 온라인에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발버둥쳤다. 그 결과 '클릭수'가 수익과 직결되는 시스템이 안착됐다. 사이트에 광고를 최대한 많이 붙이고 클릭을 유도한다. 조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고 수익은 늘어난다. 홈페이지에 광고를 덕지덕지 붙여 놔 본문을 읽기조차 힘든 기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게다가 한국 언론만 겪는 한 가지 특이한 문제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읽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사를 읽지 않고,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뜨는 기사를 읽는다. 이제 언론사들의 과제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배치되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광고 수익을 노리는 언론사들의 절대 기준이 됐다. 일단 실시간 검색어에 뜨기만 하면, 종교지도 연예인 이야기를 쓰고 경제지도 교회 이야기를 한다.

이 두 가지 환경에 무릎 꿇은 언론들이 지금의 비극을 만들었다. 좀 더 많은 사람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온갖 자극적 어휘를 조합해 제목을 만든다.

포털 사이트에서 좀 더 상단에 검색되기 위해, 내용은 같지만 제목만 살짝 바꿔 기사를 몇 번이고 발행한다. (이런 행태를 '어뷰징'이라고 한다.) 무조건 빨리, 많이 기사를 생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 같은 품이 들어가는 일은 뒷전이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실시간 검색어를 하나씩 눌러 보라. 수백 수천 개의 기사가 나올 것이다. 내용은 다 비슷하다. 거대 통신사가 오보를 내면, 다른 언론사들도 그에 따라 줄줄이 오보를 내는 현상은 이런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정파적인 언론, 정파적인 독자, 그리고 가짜 뉴스

한국 언론의 문제를 또 한 가지 뽑는다면 지나치게 정파적이라는 것이다. '언론이 정파적인 게 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기 쉽지 않다. '불편부당'은 과거부터 언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언론이 어떤 사안에 대해 불편부당을 이유로 기계적 중립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은 대선 때마다 지지하는 후보를 천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안과 인물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한국 사회에서 지나친 정파성은 언론과 독자 모두에게 독이다. 언론사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어떤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도하고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보도는 최대한 자제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고 과장된다. 개신교 언론들이 보수 개신교계를 대변하며 동성애와 이슬람,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사로 쓴 정보가 잘못됐다고 드러나도,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언론도 정파적이지만 독자도 정파적이다.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언론사 기사만 찾아 읽는다. 한쪽으로 치우친 언론사의 기사만 보면서 계속 자

사진:민중의소리

기 생각을 확증 편향한다. 비판의식 없이 이런 기사들에 노출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가짜 뉴스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다른 언론에서 그 뉴스를 반박해도, 이들은 그 언론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기회를 잃는다.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뉴스가 넘쳐나지만, 판단의 기준이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이런 상황은 소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진보 성향의 독자들도 언론이 황교안을 비판하면 환영하지만, 조국을 비판하면 '내부 총질'이라며 등을 돌린다. 어떤 것이 비판받을 지점인지 살피기보다, 황교안과 조국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독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각자를 대변하는 언론의 기사를 들고 서로를 가짜 뉴스라고 공격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보다 정파에 충실한 보도는 상대편을 제압하는 용도의 무기로 기능하게 된다.

사실 앞에 겸손하라

전쟁터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은 사치처럼 보인다. 당장 한쪽에 편승해 다른 쪽을 공격해야 할 것 같다. 저쪽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조금 달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극렬하게 대결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언젠가 끝이 나기는 할까.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뾰족한 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혼탁한 환경에서 작은 개신교 전문지 편집국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 가지 원칙으로 삼은 것이 있다. '사실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다. 언론으로서 사실관계에 충실하고 특정 인물이나 이념에 복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태도다. 언론이라고 진실을 100% 알 수는 없다. 그 진실에 얼마나 다가갔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기사가 지금은 흠 잡을 데 없이 보이더라도, 언젠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그 기사가 반박됐을 때는 겸허하게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확증 편향을 하지 않기란 힘든 일이다. 우리를 둘러싼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확증 편향을 부추긴다.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사실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수고를 요한다.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은 그런 수고를 들일 여유가 없다. '믿음'대로 보는 게 편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한 언론이 없듯이 완벽한 독자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특정 언론과 인물, 사상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아는 것이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놓아 버리면 안 된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저널리즘 상상하기

김가연 대표
한국피스빌더네트워크

11월 9일 토요일. 서울 구석구석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로 가득찼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예배 형식의 집회를 주도했다. 서초에서는 공수처법 처리 등을 내세운 검찰개혁 집회가 있었고, 여의도에서는 전태일 49주기를 맞아 노동기본법 쟁취를 주장하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홍대에서는 5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홍콩의 민주주의 투쟁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한 날, 한 사회에서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열망하는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 우리 사회는 참 바쁘다.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넘쳐들어오는 여러 정보를 소화하기에도 벅찬데, 나만의 메시지를 여러 창구를 통해 발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회다.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에 몰두하다 보니 정보 과잉의 세대가 되었다. 광화문 광장에 매 주 모여 집회를 여는 태극기 부대에도 영상을 찍는 어르신들이 늘 있다. 지긋한 연세에도 정보 생산자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문제는 자신의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분명히 정보의 파급력을 인지하고 있을테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듯 하다. 자신의 필요가 목 끝까지 차올라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소통의 역학에는 언론이 자리잡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4년 연속 세계 꼴찌라고 하지만, 여전히 뉴스 형식을 띤 정보는 각 개인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덕에 누구나 여러 종류의 정보에 접근하게 되면서 개인의 정보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왜 사회에 표출되는 목소리는 점점 배타적이 되는가? 1) 여러 종류의 정보가 다양한 관점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2) 다양한 관점의 정보가 있다해도 개인이 그 모두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러 종류의 정보'는 '여러 개의 정보'로 대체해도 될 만큼 정보의 차별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검색 포털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뉴스 생태계의 특성상 얼마나 많은 클릭수를 얻느냐에 따라 언론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결정된다. 그러다보니 같은 내용의 기사도 말을 바꾸어 여러 개의 기사로 나누어 보도하는 뉴스 파편화 현상이 생겼다. 더불어 잘게 쪼개진 맥락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단편적 사실을 과장해서 보도하는 현상도 생겼다. 다수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파편화되고 편향적인 정보는 이를 소비하는 개인의 사고를 편협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한 사건의 단면만을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혹 개인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접했다 해도, 확증편향이라는 인지 체계가 다양한 관점을 곧바로 수용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즉, 과거 자신의 경험과 충돌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의견을 강화시키는 정보만을 걸러서 수용하게 된다. 이를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확증편향 현상은 비슷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인터넷상의 알고리즘 구조 때문에 정체되고, 많은 경우 강화된다. 새로운 정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다른 이야기에 귀를 닫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집단을 '혐오'하게 됐다.

이런 언론의 특성을 노르웨이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전쟁 저널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언론이 갈등이나 어떤 사회적 문제를 보도할 때 갈등을 더 조장하는 방식으로 보도한다는 것이다. 갈퉁이 구분한 전쟁 저널리즘 혹은 갈등을 조장하는 저널리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을 당사자 중 하나가 이기면 다른 쪽은 지게되는 제로섬 구도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복잡한 갈등의 맥락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도한다. 더 나아가 우리 대 그들의 프레임 안에서 상대편을 비인간적으로 묘사한다. 여러 폭력적인 갈등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가 많은 경우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기사 헤드라인에 '00측의 공격으로 *명 사망' 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식의 보도는 폭력의 가시적 측면에 집중하여 갈등의 편을 나누는 데 일조한다.

사진 SBS(상), 한국경제(하)

이번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도한 기사들도 그렇다. '검찰개혁' VS '정권 규탄' 혹은 '조국수호' VS '조국구속' 등 둘로 나눠진 여론의 양태를 극대화시켜서 보도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우리 VS 그들의 프레임이다. 집회가 크게 둘로 나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를 통해 여론의 양극화를 강조하면 두 양극 사이에 여러 단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이 묵살되거나 한쪽으로 흡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남성 및 엘리트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한다. 3) 평화를 위한 움직임 보다는 전쟁에 관심을 둔다. 갈등이 폭력적으로 발생하기 전이나 갈등이 잦아든 이후의 움직임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 두 카테고리는 남북에 관한 보도에서 잘 나타난다. 남북 관련 뉴스는 주요 국가 정상들의 행보에 귀추를 주목한다. 최근 6개월간의 남북 기사에서 '대통령' , '장관' , ' 차관' , ' 유엔 대사' 등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는 '돼지열병' 말고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북한이라는 폐쇄된 국가의 특성상 정치인들의 대화 및 교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도 남성/정치인을 제외한 일반인 피스빌더들의 활동은 잘 보도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평화저널리즘〉의 번역자 김동진 박사에 따르면, 남북미 회담 보도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나 발언만 보도되는 것, 정상회담 보도에 편중된 것 등은 한반도의 평화가 몇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남북 주요 이슈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정상회담, 남북미 회동 등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보도가 쏟아졌다. 맥락 보다는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저널리즘은 갈등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전쟁 저널리즘	평화 저널리즘
폭력, 승리 지향적 :두 집단, 하나의 목표(승리), 전쟁(제로섬 지향)	**갈등, 해결 지향적** :여러 집단, 여러 목표, 윈·윈 지향 갈등의 창의성에 초점
● 갈등의 발생 장소에 초점 ● 닫힌 공간, 닫힌 시간 : 갈등 발생 장소 내에서 원인/효과 분석 ● 누가 먼저 돌을 던졌는가 ● 누가 이기는가 ● 갈등의 맥락에는 크게 관심이 없음 ● 폭력의 가시적 효과에 집중 : 사망자, 부상자, 물적 손실 ● 전쟁을 희미하고 비밀스럽게 묘사 ● 우리 VS 그들 프레임에서 : '우리'를 위한 목서리 : '그들'을 문제화, 비인간화 ● 대응적 보도 :보도를 하기 전에 폭력 발생을 기다림	● 갈등의 구성(집단·목표·쟁점)을 탐구 ● 열린 공간, 열린 시간 :특정 지역을 넘어서 원인/결과 분석 :역사/문화 속에서 원인 분석 ● 갈등의 맥락을 파악 ● 폭력의 비가시적 효과에도 집중 :트라우마/찬사, 구조/문화적 손실 ● 갈등을 투명하게 묘사 ● 모든 집단에 목소리를 부여 :공감과 이해를 위한 보도 :집단이 아닌 갈등/전쟁을 문제로 인식 :모든 집단을 인간화 ● 예방적 보도 :폭력/전쟁이 발생하기 이전 상황도 보도
프로파간다 지향적	진실 지향적

결국 기존 저널리즘의 보도를 보면 언론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을 이해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갈등은 두 사람 간의 단순한 충돌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나타나는 것이다. 갈등은 복잡하다. A 대 B의 대결로 단순화 시키면 해결법을 찾을 수 없다. 갈등은 계속 변하는 것이다. 지금은 A와 B의 충돌이라고 해도, 조금 지나면 A+ B와 C와 D가 이리저리 얽힌 다툼이 될 수 있다. 갈등은 악이 아니다. 갈등은 인간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갈등을 잘 표출시키면 긍정적 에너지가 되는 변환점이 생긴다.

따라서 언론은 갈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양측의 가시적인 갈등(물리적인 폭력)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

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까지 보도 해야 한다. 즉, 사회가 갈등에 대한 비폭력적인 대응 방식에 가치를 두게끔 '평화에 기회를 주는 방식' 으로 갈등을 보도해야 한다. 이것이 평화 저널리즘이다.

1)평화 저널리즘은 갈등을 여러 집단과 목표 사이의 윈윈 구도로 이해한다. 따라서 갈등의 맥락을 파악하고, 폭력의 구조적/ 문화적 영향까지 보도하며, 갈등 해결에 관심을 둔다.

지난 6월, 홍콩의 시민 집회가 2주차에 접어들 무렵, 한겨레에 실린 기사는 '100만 시민 참여'라는 숫자 이면의 맥락을 짚어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997년 홍콩이 반환된 때부터 지금까지 홍콩 시민들은 중국으로부터 '통합'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았다. 더불어 일국양제 체제 아래 한번도 '존중받은 적이 없다'는 실망감이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보도는 홍콩의 갈등이 불거진 맥락을 제공하여 갈등을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2) 모든 편의 고통과 필요에 목소리를 부여한다. 갈등의 한 측을 대변하는 편향성을 지양한다. 그리고 남성/정치인 중심의 보도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여성/일반인 피스빌더의 목소리도 보도한다. 3)갈등이나 사건이 부각되었을 때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이전이나 이후의 사회 상황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한다. 특히 평화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한다.

'2019평화저널리즘스쿨' 수강생들이 취재하고 작성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의 'Korea Peace Now' 캠페인이나 '피스모모' 의 '탈분단 평화교육' 보도는 남북 보도 양상에 여성/일반인 피스빌더의 목소리를 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치 활동 이외에도 남북의 평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정치/ 안보 싸움으로 굳어진 남북 갈등에 대한 이해를 넓

혀준다.

독자의 입장에서도 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훑어주는 저널리즘을 상상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뉴스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뉴스는 단지 객관적일 뿐이다.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진실이 존재한다. 그러한 다양한 진실 중에 언론사의 '게이트(gate)' 를 통과하는 진실만 뉴스가 된다. 언론이 보도하는 진실이 수많은 관점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사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른 관점을 경청할 필요가 생긴다.

여기서 소개한 평화 저널리즘이 절대적인 대안은 아니다. 결국 평화 저널리즘도 기존 저널리즘의 구조 속에서 사회와 갈등을 보는 다양하고 공정한 시각에 무게를 더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다만 언론은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에 불씨를 당기기 보다, 갈등이 내뿜는 열기를 차분히 모아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창구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음은 미국 파크대학교의 평화저널리즘센터에서 제시하는 평화저널리즘의 10가지 보도 원칙이다. 평화저널리즘 원칙은 기사를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가 참고할 만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기사를 쓰는 사람은 평화에 기회를 주고, 읽는 사람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저널리즘을 상상해 본다.

1. 평화저널리즘은 미리 행동하며, 갈등의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합니다.
2. 평화저널리즘은 집단을 분리하기보다 연합할 방법을 찾으며, “우리 vs 그들”, “착한 사람 vs 나쁜 사람”의 구도로 단순화하여 보도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3. 평화 저널리스트들은 공식적인 선전을 거부하는 대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사실을 밝히고자 노력합니다.

4. 평화저널리즘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갈등의 모든 측면에서 이슈/문제/평화의 제안을 보도합니다.
5. 평화저널리즘은 엘리트나 권력자들을 위해 혹은 그들을 위해 보도하는 대신, 소외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6. 평화 저널리스트들은 "그때 그때" 폭력과 갈등을 표면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도하기 보다, 깊이 있는 보도와 맥락을 제공합니다.
7. 평화 저널리스트들은 자신이 보도한 기사의 결과를 생각합니다.
8. 평화 저널리스트들은 무심코 선택한 용어가 여론을 선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를 신중히 선택하고 분석합니다.
9. 평화 저널리스트들은 신중히 이미지를 선택하여, 자신이 선택한 이미지가 사건을 오도하거나, 이미 심각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재차 희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10. 평화 저널리스트들은 고정관념이나 미신, 편견을 만들거나 지속시키는 미디어의 정체를 폭로하는 반박 내러티브를 제공합니다.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

강남순 교수
미 브라이트신학대학원

한국에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묻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 해체를 위해 항의하러 매일 오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실은 많은 종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없다. 서구에서 건너온 기독교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서구는 지역적인 서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영역의 서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9세기 초에는 영토적으로 서구가 침범해서 식민지를 만들어 나갔다면 지금은 영토는 아니라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제는 서구와 비서구의 경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옷을 보아도 다들 서구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다. 서구는 무소부재한 개념이다.

미국대통령의 영향력을 감안해 볼 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 세계 사람이 미국 대통령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 이유는 그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척 할 수 있는 사치는 없다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수한 인재들은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전체 1년 예산은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1년 예산 밖에 되지 않는다. 캠브리지에서는 교수라 할지라도 한 번에 몇 십 권의 책 밖에 빌릴 수가 없다. 그러나 하버드에서는 한 번에 300여 권을 빌릴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지식을 생산하는 미

국의 대학들을 볼 때, 사회의 토대를 놓는 일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안에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서구의 초석을 놓은 두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이다.

서구에서 온 제도화된 기독교를 말할 때, 우리는 서구가 더 이상 "서구"가 아니라는 점과 기독교는 이 서구 사상의 중요한 초석 중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전제 하에 기독교는 어떤 책임이 있나?

예수 vs.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 안의 예수!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예수를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제도화된 종교 안의 예수를 따르기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의 중간 즈음에 있어야 한다.

니체는 제도화된 종교를 비판하면서 the first and the last Christian은 예수라고 말했다. 니체가 쓴 〈Anti-Christ〉라는 책을 읽어 보면 예수가 보여 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강조한다. 제도화된 교회는 인간의 삶을 부정하고 그 삶을 초월해 있는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수는 삶을 긍정하는 존재이다. 생명을 긍정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이다.

모든 제도에는 딜레마가 있다. 무엇이든지 제도화하자마자 운동에 위계가 형성된다.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고정해서는 안 될 것을 고정시키게 된다. 믿는 바에 교리가 생기고, 조직화 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조직신학의 미명 아래 여러 갈래로 나누어 놓았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등등

글을 쓰지 않고 남기지 않은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소크라테스이고, 다른 한 명이 예수다. 말은 화자의 현존이 필요하다. 그런 화자의 현존이 없는 '쓰기'는 오독과 오해에 항상 노출되어 왔다. 나의 강의를 들어도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다르게 표현하고 강조점을 달리 하게 될 것이

다. 그렇기에 소크라테스는 쓰기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고, 말하기를 현존적인 것으로 보았다. 쓰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소크라테스는 의도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고 예수는 아마 쓰기를 못 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든지 간에 남긴 글이 없다.

니체는 포스트 모던 사고방식의 문을 열게 되는 한 구절의 말을 남긴다.

"사실은 없다.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다."

그는 근대 인식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대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나의 강의를 듣고 똑같이 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들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 그릇의 한계대로 이해하고 그 말을 전달할 뿐이다.

그런 한계를 전제하면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 기독교는 전체 종교의 30%이지만 그 힘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조건에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고 있다는 것은 제한된 것을 본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예수가 우리를 구속시켜(redeem) 주셨지만 우리도 이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구속시켜 (redeem) 드려야 한다. 예수를 읽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 강의의 제목인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라는 말은 레오나르드 스위들러라는 남성 신학자가 가톨릭 잡지에 1971년에 싣게 되면서 나온 말이다. 여러분은 예수가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다. 예수는 어떤 예수를 말하는가? 페미니스트는 무엇인가? 좋은 질문을 가져야 한다.

'동성애를 찬성하십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편집자 주:동성애 존재 자체가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을 알면서 왜 그 나무를 만들었나?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시를 읽으며 사실을 구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오늘 나의 강의는 예수는 누구인가? 페미니스트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열어가는 것이다.

예수는 삶을 긍정하며 많은 죄인들과 약자들과 이방인들을 환대했다. 그는 제도화된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다. 최후의 심판을 다룬 성경본문을 보면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다. 단지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갇힌 사람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to live with others? 와 관계된 기준들이다.

기독교는 이제 혐오와 저주의 교회가 되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만약 예수가 목사가 되려고 했다면 그는 바로 1차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그는 세상의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안식일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종교의 눈으로 보면 아주 이단적이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기도 했다.

따스한 연민을 가진 예수의 시선을 회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구속해야 (redeem) 한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을 살려 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안을 보라. 그는 요즘말로 한다면 무슬림이나, 무종교인이나 성소수자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안을 언급하셨다. 종교적인 경계를 넘어섰던 예수님이시다.

교리라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교리는 계속 바뀌어 왔다.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교회,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교회가 있다. 기독교라는 말은 절대 단수가 아니다. '기독교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복수이다.

4복음서의 제한된 소스에서 어떤 예수를 만날 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는 해답이 아니고 질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했다. 예수도 제자들에게 질문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모두에게 반말하는 것으로 번역된 한국어 성경은

문화의 산물이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반말하는 분이 아니셨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말합니까?" 예수님은 각자의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해 하셨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내 생각은 중요하다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했다. 예수는 내가 누구라는 답을 주지 않고 듣기만 했다. 우리는 우리만큼만 이해한다. 사실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스위들리에게 페미니스트는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썼다. "Feminism is the radical notion that women are people."

radical이라는 의미는 "going to the root"이다. 근원적인 뿌리에 접근하다는 뜻이다.

여성이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성도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상식적인 말인데도 급진적이라는 말을 써야 했나? 그렇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인데도 여성도 사람이라는 말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가부장제에 이 사회가 물들여 있었다.

여성이 가장 먼저 찾고자 했던 권리는 참정권이었고, 그 다음이 교육권이었다. 지금까지도 참정권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금치산자과 같은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성도 그렇게 열등한 존재로 이해되었다. 교육을 받는다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이 확대되었지만 최근까지 열리지 않는 분야가 있었는데, 법대, 의대.

신학대였다. 이 모든 분야는 생명과 연관된 분야다. 여성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이런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쉽게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1955년에 마지막으로 신학대가 여성에게 열렸다.

모든 종류의 혐오사상에는 두 가지 전제가 존재한다. 하나는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 다른 하나는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이다. 여성혐오, 난민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 모든 혐오는 이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여성혐오는 남성만 갖는 것은 아니다. 가부장적 가치를 내면화하게 된 여성도 여성혐오사상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페미니즘은 여자를 소중한 존재로 보는 입장이며, 모든 여성도 사람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페미니즘을 따르는 것이다. 복음서에는 여성의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예수의 주변에는 여성제자들이 따르고 있었다. 부활이 첫 증인들도 여성들이었다.

반면,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성인식은 어떠했는가?

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토라가 여성에게 읽혀진다면 차라리 토라를 불태우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당시 성경기자들은 사회상을 반영하였다.

유대인은 하루 3번 기도 할 때, 이방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무지한 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의 존재는 비존재와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왜 존재했는가?

역사를 보면 두 가지 기대가 있다. 하나는 사창가 모델이다. Lookism(외모차별주의)을 통해 여성이 남성들에게 섹스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강요받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이어트 사업과 성형외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모델은 농장모델이다. 여성을 출산과 육아의 책임자로만 보는 것이다.

시몬느 보봐르는 남성은 주체이고 여성은 타자라고 이 세상을 꼬집어 말했다. 남성은 First sex이고 여성은 second sex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변의 여성을 보면, 부활사건의 증인도 여성이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에도 여성의 역할과 설득이 중요했다. 여성들에게 지적 활동이 허락되지 않던 시기에 예수님은 마르다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지적호기심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예수는 혁명적이고 과격한 사람이었다. 고로 우리는 예수님을 페미니스트로 선택해야 한다.

바울은 양가적인 사람이다. 한편에서는 여성을 억압하는 표현을 쓰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 많은 성소수자와 여성혐오자들은 예수님을 인용하지 않고 바울을 인용한다. 다행히도 (물론 약간 위험한 소지의 표현들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노골적인 차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남성인 예수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여성중심주의적 페미니즘 (gymocentric feminism)은 womanhood를 강조했다. 처음에는 '여성' 과 '남성' 만 보였는데, 너무나 다양한 intersectionality (교차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한 사람이 백인이고 남성이고, 이성애자이고, 기독교인이어서 모든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매우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2-3개의 job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페미니즘의 출발점은 gender였지만 모든 사람과 모든 형편은 교차성 (Intersectionality)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성'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당사자성만으로는 변혁을 일으킬 수 없다. 흑인 문제도 백인의 도움이 있었을 때 더 큰 변혁을 이끌 수 있었다.

사람중심주의적 페미니즘(humanistic feminism)이 있다. 이것은 humanhood를 강조한다. 이것은 feminism은 본질(essence)이 아니라 입장(position)이라고 본다. sex라는 말은 생물학적 성별을 말한다면 gender는 사회학적 성별을 말한다. 시몬느 보봐르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곳도 있지만 당사자만의 힘으로는 변혁을 불러 일으키지 못 한다. 흑인, 여성 문제는 다 연대해서 일어났다. 동질성(sameness)의 연대에서 다름 (alterity: difference는 기준이 있어서 우열을 가리지만 alterity는 다름 그 자체를 타자로 보면서 그대로 인정하는 어휘)의 연대로 전환되었을 때 변혁의 힘이 생겼다.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많이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공통점을 보면서 연대를 하다 보니 서로 고유한 다름(alterity)를 간과하거나 축소하게 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taboo가 있다. 하나는 성 (sex)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수자문제이다. 균질성을 만들기 위해 편협하게 되는 우를 범한다.

예수를 페미니스트로 redeem해야 한다. 예수가 최후의 심판에서 말한 6가지 기준으로 볼 때, 그를 페미니스트로 만들어야 한다. 주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연대하는 일이 필요하다. 장애인, 성소수자들, 아이들, 여성들..

책임적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교가 아닌 예수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는 연민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 주변부를 연민의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연민과 동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연민은 영어로 compassion이다. 즉 suffer-with의 개념이 있다. 그러나 동정에는 시혜자와 수혜자가 생겨서 윤리적인 위계가 생긴다.

연민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묻는다. root question이 정의로 이어진다. 고통의 원인을 변화시키고자 연대하면 된다. 하지만 동정인 구제는 '왜' 를 묻지 않는다.

둘째로는 책임성으로서의 종교가 되어야 하다. 예수의 최후의 심판을 보면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관심이 있지, 교리부분을 확인하지 않으신다. 타자에게 어떻게 책임적인 삶을 살았는가? 교회는 구원 club이 돼서는

안 된다.

셋째로는 불가능성의 열정으로서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 가능성의 축과 불가능성의 축이 있은데 교회는 그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 새로운 소명감과 열정의 장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가 던진 how to live의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가 이 문제와 씨름하지 않았다면 죽을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편한 삶을 살기 힘들다. 사유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은 자기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막는다. 한나 아렌트는 비판적 사고의 부재가 악의 뿌리라고 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악에 가담하게 만든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의 무지나 비판적 사고의 부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유한한 삶에 어떻게 유의미한 삶을 살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예수는 노숙자였다.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고생길이다. 타자에게 무관심할 수 없고 타자에 대해 책임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를 하나 주셨다. 그렇다. 바로 "너희가 사랑할 때 (love one another)"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사랑이 뭔가? 골치 아픈 삶을 사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하나의 도구이다. 지적인 오만에 빠지라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ism은 연장, 도구일 뿐이다. 이것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폭력을 가할 수도 있다.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ism을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한다. 특히 페미니즘은 전 분야에 걸쳐져 있다. 예를 들어 약의 용량을 정할 때도 그 기준이 성인 백인 남성을 그 기준으로 한다. 여성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든 분야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지적 패배주의에 빠지기 쉽다. 내

가 뭘 할 수 있나? 이걸 한다고 뭐가 변하겠느냐? 등등

그러나 내 방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고 지금은 아예 내면화되어 있다.

"Small change can make a big difference."

대부분의 씨를 뿌린 사람은 열매를 보지 못한다. 그저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타자를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 변화이다. 좌절은 조금 하고 변화를 위해 일어서자.

Redeem! 예수를 Redeem해야 한다. 제도화된 교회의 Christian보다는 예수의 삶을 따르는 Jesusian이 되자.

〈정리: 문선주 자매〉

주제: “급진적 제자도를 말하다”

- 일정: 2020년 1월 18일 (토) 오후 2:00~6:00시
- 장소: 종로 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연지동)]
- 연락처: 033-242-9615
- 참가신청문의: 이메일 kac@kac.or.kr
- 등록비: 사전 등록 20,000원 / 당일 등록 30,000원

강의내용 / 강사

1. 아나뱁티스트의 급진적 제자도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 문선주 목사)

2. 기독교 역사 속 아나뱁티스트의 제자도 이해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

3. 급진적 제자도의 실천1 : 목회와 섬김
   (고기 교회 안홍택 목사)

4. 급진적 제자도의 실천2: 환경
   (환경 운동가 최병성 목사)

5. 급진적 제자도의 실천3: 교육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송인수 대표)

사회: 권세리 (Cheryl Woelk 평화교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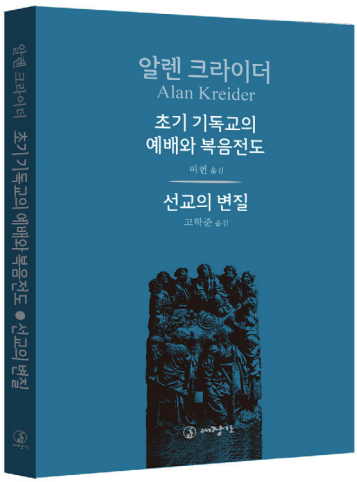
한국 아나뱁티스트 센터

아직 크리스텐덤 안에 있는가?

고학준 형제
평화누림교회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가져갑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위치한 '코이노니아 농장'에서 부활절 새벽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예수님이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마리아인을 똑같이 형제자매로 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한다며 노예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1942년 흑인과 백인이 동등하게 살기 시작한 곳이다. 인도자가 사회 운동을 하는 친구가 보내준 이메일을 읽어주었다. 그 친구는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가치들이 너무나 쉽게 희화화되고 변질되는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 하면 옛날에는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떠올랐으나 이제는 여성 이기주의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을 뜻하는 비속어가 먼저 생각난다. 그 친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숭고한 가치들을 담은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빼앗아 형편 없이 더럽혀버렸다. 우리는 언어를 잃었고, 그 안에 담긴 가치도 서서히 잊어간다.



'믿음' 이란 단어는 어떠한가? '예수 믿는다' 는 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일 때가 있었다. 약 100년 전 기록을 보면 예수 믿고 회심해서 노비문서를 태우고 전답을 팔아 풀어준 노비들 손에 쥐여주던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서로 정 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믿음' 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교회' , '예배' , '전도' , '선교' 도 마찬가지다.

'머리에서 손은 참 멀다. 눈에서 손은 아주 가깝다.'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오려면 단어가 담고 있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 배우고, 그게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상상한다. 그리고 살아내면 그 가치가 지금 여기서 다시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작업은 아주 어렵다. 살면서 꿈을 현실로 바꿔본 경험이 몇 번이나 되는가? 새해 다짐을 끝까지 지켜본 적은 있는가? 생각에서 행동으로 가는 길은 참 지난하다. 그런데 한번 눈으로 보고 나면 생각보다 금방 가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살기보다는 부모가 사는 모습대로 따라 살기 마련이다.

제대로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라면 변질되기 전 '믿음' 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찾기도 힘들고, 보러 가기는 더 힘들다. 차선은 그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 읽어보는 거다.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삶을. 알렌 크라이더는 신학자가 아닌 역사학자 답게 1~2세기 기독교인들이 살아간 모습을 기록했다. 그들이 살아간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보여주고, 그에 맞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전도를 하고 선교에 성공했는지를 다양한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를 어떤 일시적 현상으로 조망하지만 크라이더는 예수 이후 약 300여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초기 기독교' 가 성장하고 또 변화해간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청년 물고기 두 마리가 길을 가다 어르신 물고기와 마주쳤다.
"젊은이들, 오늘 물이 참 좋지?"
계속 헤엄쳐 가다 말고 청년 물고기 한 마리가 친구에게 물었다.
"그런데 물이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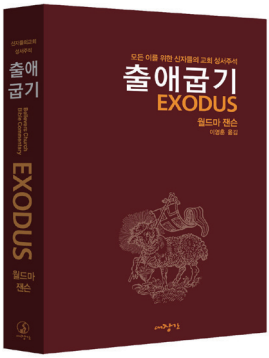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 우화를 통해 삶을 규정하는 거대 조건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지, 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한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현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한번쯤 질문해본다면 어떨까? 비슷한 현실 속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전도』와『선교의 변질』의 원제에는 모두 '크리스텐덤' 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기독교가 지배하는 나라' 로 풀어낼 수 있는 이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중세 시대 교황을 떠올린다. 알렌 크라이더는 '크리스텐덤' 이 3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시작돼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본다. 그리고 크리스텐덤만큼 '예수 믿는다' 는 개념을 변질시킨 요소는 없다고 설명한다. 고민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여전히 크리스텐덤이라는 물에서 헤엄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쯤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그 물에서 갓 벗어나 버둥거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크리스텐덤 이전에 펄펄 살아 숨쉬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이 말 그대로 생명의 물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간소개

출애굽기 – 신자들의교회 성서주석

월드마 잰슨 지음 | 이영훈 옮김 | 대장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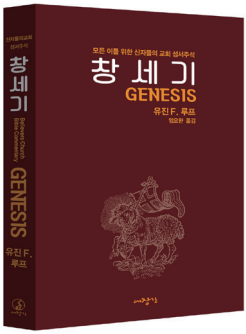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 위대한 인간의 제국인가? 우리가 결코 다 헤아릴 수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인가?

이집트를 탈출하여 자유를 얻는 것은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이라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소명 모델에 대한 서론이다. 준비된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풀어주려고 이집트의 통치자에 맞서 극적인 전투를 벌이신다. 구경꾼 이스라엘은 흔들리고 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국가가 된다는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경배한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휘감지만, 이번에는 노예생활에서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이기심으로 변한다. 이 백성은 자신들 한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없는 임재에 신앙의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

창세기 – 신자들의교회 성서주석

유진 F. 루프 지음 | 임요한 옮김 | 대장간



이 책은 창세기에서 신앙 공동체의 발전을 추적하는 풍부한 이야기의 흐름에 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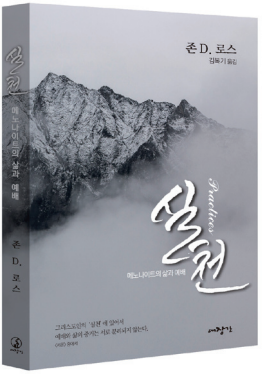
루프는 창세기의 중요한 신학적 모티브와 오늘날 그 모티브가 의미하는 것들을 탐구한다. 이 탐구 주제는 창조, 재앙과 반응, 약속과 성취, 불임과 축복이다.

이 주석은 회중 공동체와 신학교에서의 창세기 연구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따라서 이 주석은 회중 교회와 신학교에서 연구를 증진시키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루프가 갈등 해결, 화해, 용서라는 주제들을 강조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 *Brethren Life and Thought*

실천 – 메노나이트의 삶과 예배

존 D. 로스 지음 | 김복기 옮김 | 대장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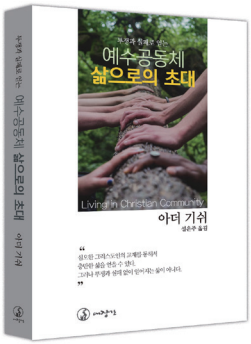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의 삶과 신학 입문서 3

그리스도인의 '실천' 에 있어서 예배와 실천하는 삶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존 로스는 아나뱁티스트-메노나이트 전통에 속한 예배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세례, 성찬, 발씻김, 공동의 식사와 같은 교회의 실행예식들이 어떻게 현재의 독특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넓혀질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추천사 :** 존 로스는 메노나이트 삶과 신학에 대한 놀라운 입문서를 저술하였다. 존중하는 마음과 더불어 허심탄회하게 말하자면 존 로스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메노나이트의 교회론적 실행예식과 신학이 무엇인지 글로 보여주었다. 이 책은 단순히 메노나이트의 삶을 소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메노나이트들을 메노나이트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 스탠리 하우어워스듀크 대학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십자가 위의 예수』 저자

예수공동체, 삶으로의 초대

아더 기쉬 지음 | 설은주 옮김 | 대장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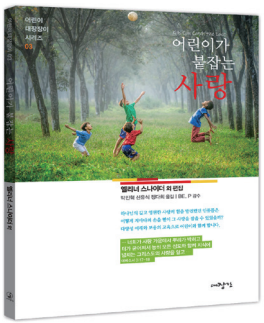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낀 살아있는 공동체의 실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진정한 공동체

이 책의 기초가 되는 질문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를 묻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 모든 것을 완전히 위임하는 삶을 사는 것과 형제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다. 그 물음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열어 놓는 것이며 그 사랑은 이웃에게 사랑을 주며, 사랑 받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탐구 속에 깊이 들어 있는 궁극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 무슨 의미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어린이가 붙잡는 사랑 – 어린이 대장장이 시리즈 3

엘리너 스나이더 외 편집 | 박진혁 신유식 정다희 옮김 | 대장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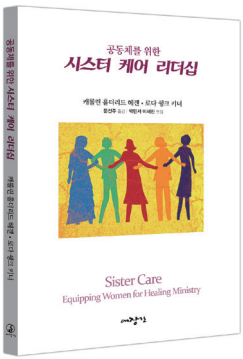


이 책은 어린이가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그러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오감을 활용하여
성서 인물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놀이와 음식을 통해 체험하며 실천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하나님의 깊고 영원한 사랑의 힘을 발견했던 인물들은
어떻게 저마다의 손을 뻗어 그 사랑을 잡을 수 있었을까?
다양성 이해와 포용의 교육으로 어린이와 함께 합니다.

〈옮긴이들의 말 중에서〉 이미 한국의 평화교육기관에서 검증하고 확신에 이른 책! 이 책은 어린이가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그러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오감을 활용하여 평화 실천의 기술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기대가 된다. 가슴이 뛴다.

공동체를 위한 시스터 케어 리더십

캐롤린 홀더리드 헤겐, 로다 웽크 키너 지음 | 문선주 옮김 | 대장간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을 세우다

●이 훈련은 참가자들이 치유될 뿐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씬디아 피콕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가난과 가정 폭력과 도시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을 내적 힘이 필요합니다. 시스터케어 세미나가 제공해 준 가르침과 자원들이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돌보면서도 상호 지지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올가 피드라산타

●로다와 캐롤린은 우리에게 은사와 상실의 이야기 모두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사라 웽어 웽크

●교회의 삶에 전적으로 통합된 여성으로서 우리는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낮은 자존감을 흘러 보내며, 우리의 은사를 분별할 필요를 제공합니다.–밀카 린드킨스키

아나뱁티스트가 뭐죠?

음 이건 운동이야.

어떤 운동이냐고? 종목은 평화, 제자도, 공동체 등이야.
이 운동은 머리나 입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예수가 썼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지.
한번 해 볼래? 살도 빠지고 통장에 잔고도 빠지는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끈끈한 편이야. 운동을 해도 같이하지.
역사와 문화와 성별이 다른데도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싶을 정도로 잘 어울려.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깐깐해. 안 볼때는 좀 살살해도 될텐데
요즘말로 좀 빡세게 사는 편이지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 운동교리나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좋고 입으로만 아멘하는
대상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있어도 잘 안 싸워
그냥 맞거나 때릴만큼 때리면 멈추겠지…
뭐 이런 배짱으로 운동하는 것 같아보여

그래서 그런가?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맷집이 좋은 편이지
오백년 넘게 맞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살았는데도
지금도 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 말이지.

같이 해볼래?
그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는 거 좋을 것 같지 않아?

아나뱁티스트 관련 웹사이트 주소

교회 www.sbrookchurch.org(쉘브룩메노나이트한인교회)

www.jesusheartchurch.org(예수마음교회)

www.jvchurch.onmam.com(예수촌교회) ■ www.facebook.com(평화누림교회)

단체 www.kac.or.kr(KAC) ■ www.narpi.net(NARPI동북아평화훈련원)

www.kopi.or.kr(한국평화교육훈련원) ■ www.daejanggan.org(도서출판 대장간)

www.wcfgw.nayana.kr(개척자들) ■ www.Reconciliasian.com(리콘실리아시안)

▶ 후원하실 단체를 안내합니다

개척자들 – 비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68801-04-014046(사)개척자들

– 소득공제용 : 국민은행 093401-04-124532(사)개척자들

ReconciliAsian(디아스포라 화해자들)

– 비소득공제용 : 씨티뱅크 892-01467-259-01 허현

KAC 스탠다드차타드 425-20-403665 한국아타뱁티스트센터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KAF 재정 사용 내역(2019. 6. 27~2019. 12. 22)

이월 344,740

수입 760,000

30,000(남상욱), 30,000(배용하), 100,000(도서출판 대장간),
600,000(예수촌교회)

지출 680,000

680,000(저널 19호 인쇄/우편)

잔액 424,740

※ KAF 후원금과 회비(정회원:월5천원)는 저널 발행과 KAF의 운영에 사용합니다.
KAF는 개인과 단체 정회원들의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용 내역 중 바로 잡을 것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배용하 형제에게 문의해 주세요.
우체국 311639-01-004603 배용하(KAF)